



제32차 해양사고방지 세미나

2017. 10. 19(목) 13:30~17:30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2층)

후 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주 관 한국선주협회, 부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중앙회,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선급, 한국선주상호보험,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해기사협회,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운조합, 항로표지기술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간사 단체 외 가나다 순)



•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행사 일정

시간	진행 내용	비고
12:30~13:30 (60분)	참석자 등록	
13:30~13:35 (5분)	국민의례	
13:35~13:40 (5분)	개회사	
13:40~13:50 (10분)	격려사	
13:50~14:00 (10분)	기념촬영 및 주제발표자 소개	
14:00~14:20 (20분)	제1주제 발표 (해양사고 조사 및 대응 시스템 고도화 방안)	
14:20~14:40 (20분)	제2주제 발표 (선원피로 및 음주운항 등 인적요인 분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40~15:00 (20분)	제3주제 발표 (페어망·로프 등에 의한 해양사고예방 종합대책)	
15:00~15:30 (30분)	휴식(Coffee break)	
15:30~17:30 (120분)	종합토론	
17:30	세미나 종료	

■ 전문가 및 업·단체 종사자 종합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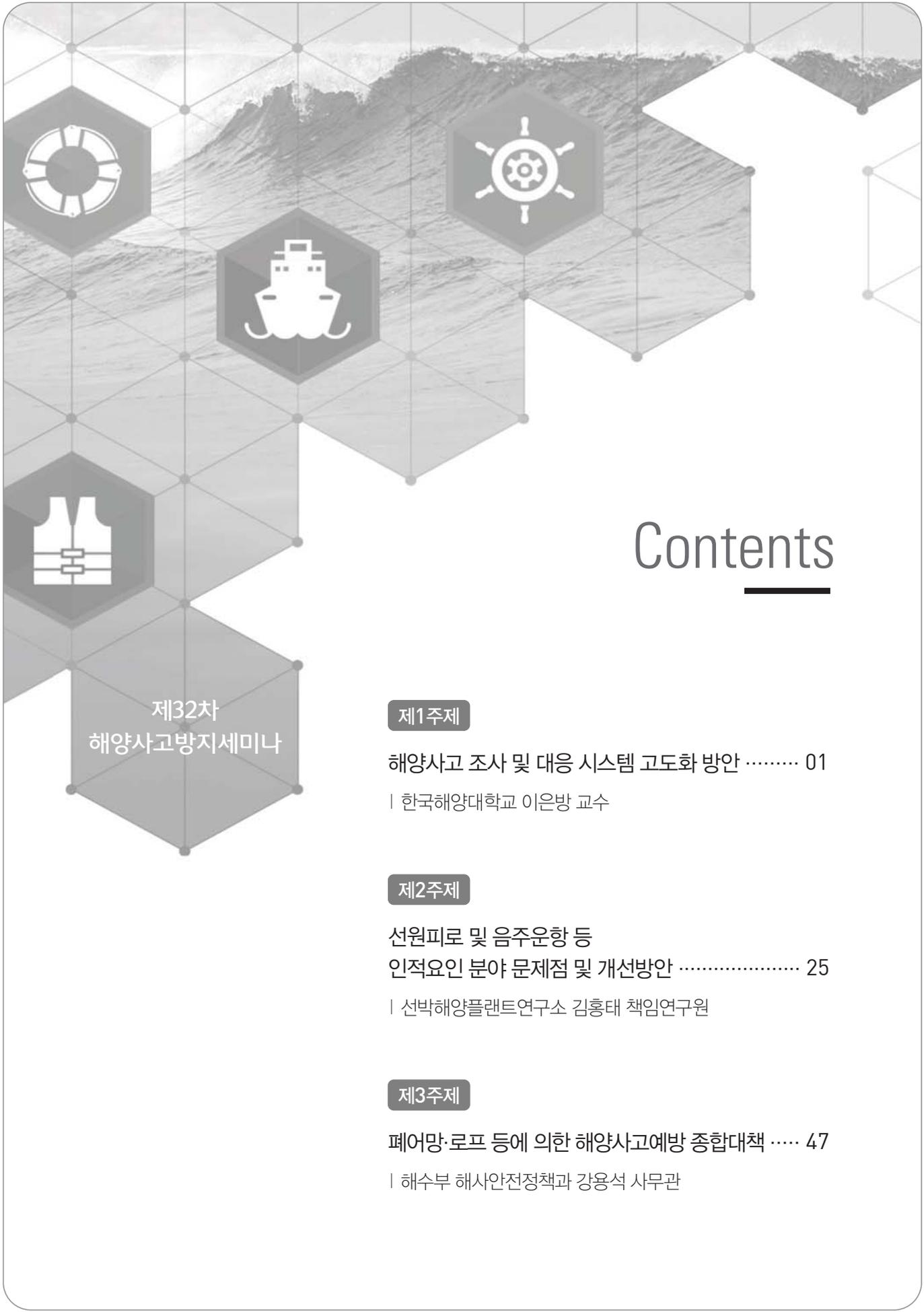
○ 좌장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예병덕

○ 주제별 발표자 및 지명 토론자

구분	주제	지명 토론자
제1주제	해양사고 조사 및 대응 시스템 고도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해양대학교 이은방 교수(발표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한선 실장 • 시노코십매니지먼트 주강석 상무
제2주제	선원피로 및 음주운항 등 인적요인 분야 문제점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홍태 책임연구원(발표자) •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채병근 교수
제3주제	페어망·로프 등에 의한 해양사고예방 종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 강용석 사무관(발표자) • 한국해운조합 최종진 팀장 •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흥선욱 대표

○ 종합 토론 일정

시 간	내 용
15:30~15:35 (5분)	좌장 인사 및 토론자 소개
15:35~15:40 (5분)	토론 진행방식 소개
15:40~16:40 (60분)	주제별 지명토론자 질의
16:40~17:20 (40분)	방청석 질의 및 발표자 답변 등 종합 질의·응답
17:20~17:30 (10분)	논의내용 정리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Contents

제1주제

해양사고 조사 및 대응 시스템 고도화 방안 01

| 한국해양대학교 이은방 교수

제2주제

선원피로 및 음주운항 등
인적요인 분야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홍태 책임연구원

제3주제

폐어망·로프 등에 의한 해양사고예방 종합대책 47

|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 강용석 사무관

제1주제

해양사고 조사 및 대응 시스템 고도화 방안

| 한국해양대학교 이은방 교수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A Study on Enhancement of Investigation and Response to Marine Accidents



해양사고 조사 및 대응 시스템 고도화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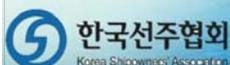
해양사고 방지 세미나
2017.10.19.

해양환경안전학회 회장
한국해양대학교 이은방 교수



발표 목차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I 국내외 대형교통사고 조사 및 대응시스템 분석
- III 해양사고 민간차원 대응현황 분석
- IV 해양수색구조 국내외 체계 분석
- V 해양수색구조 선사 역할 및 대응방안
- VI 해양사고 조사 및 대응 시스템 발전 방안



About
KSA

오대양 육대주
우리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어드립니다.

CHAPTE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주



1.4 연구 추진 전략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해양사고 조사/대응 선진화 방안

해양 사고 통계 조사	해양 사고 사례 분석	해양 사고 조사 현황	유사 기관 조사 분석	조사 대응 과제 도출	해양 사고 조사 선진화	해양 사고 대응 협력	해양 사고 대응 고도화
----------------------	----------------------	----------------------	----------------------	----------------------	-----------------------	----------------------	-----------------------

문헌 및 자료조사	현장 방문조사	전문가 Brainstorming	관련기관 의견수렴
선행연구 해양사고 통계, 대응사례	NTSB, EMSA 자료 일본운수안전위원회 방문조사	해양사고 조사/대응 전문가 토론 및 의견수렴	선주협회 해양경찰 해양안전심판원 해양구조협회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About
KSA

오대양 육대주
우리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어드립니다.

CHAPTER 2

해양사고 통계 및 사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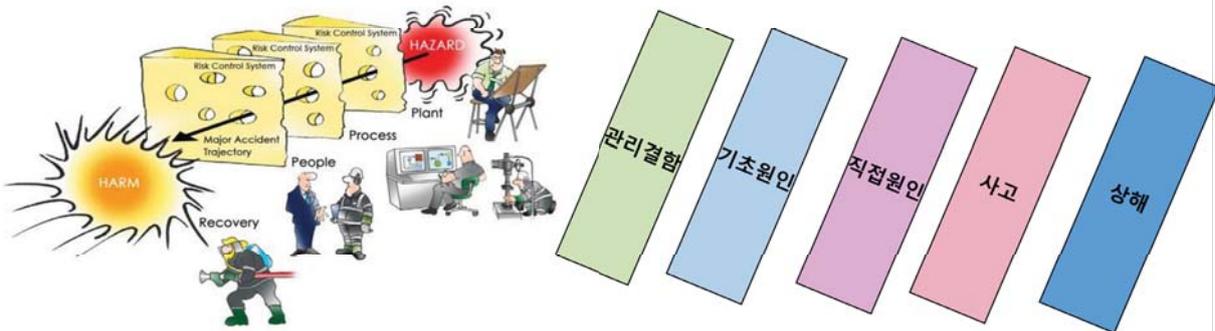
2.1 해양사고 개요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해양사고 정의와 메커니즘

IMO Circular MSC-MEPC.3/Circ.3 "Casualty Investigation Code"

Any marine casualty or marine incident (not include a deliberate act or omission, with the intention to cause harm to the safety of a ship, an individual or the environment)



James Reason Swiss Cheese Model

F. E. Bird Jr. 신도미노 이론



2.1 해양사고 개요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해양사고의 종류



해양안전심판원의 구분

- 충돌
- 침몰
- 접촉
- 기관 손상
- 좌초
- 인명 사상
- 전복
- 안전·운항 저해
- 화재·폭발
- 기타

해양경찰의 구분

- 기관 손상
- 침몰
- 키 손상
- 속구 손상
- 추진기 손상
- 조난
- 좌초
- 시설물 손상
- 충돌
- 안전 저해
- 전복
- 운항 저해
- 침수
- 인명 사상
- 화재
- 해양오염
- 접촉
- 기타

해상교통공학의 구분

- 교통관련 사고
: 충돌, 좌초, 접촉
- 기술관련사고
: 화재·폭발, 침몰, 전복, 침수, 악천후 손상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2.2 국내외 해양사고 조사분석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국내 해양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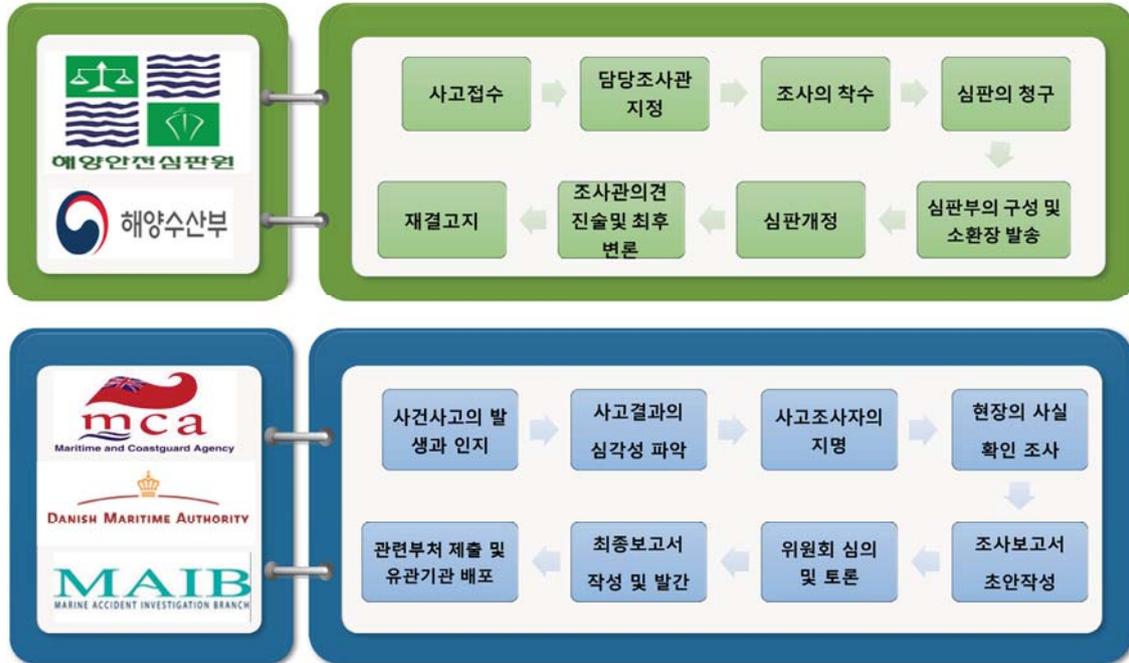
국외 해양사고



2.3 국내외 해양사고 특징 비교분석 / 시사점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국내외의 해양사고조사 절차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About KSA
오대양 육대주
우려 국민의 물과 행복을
실어드립니다.

CHAPTE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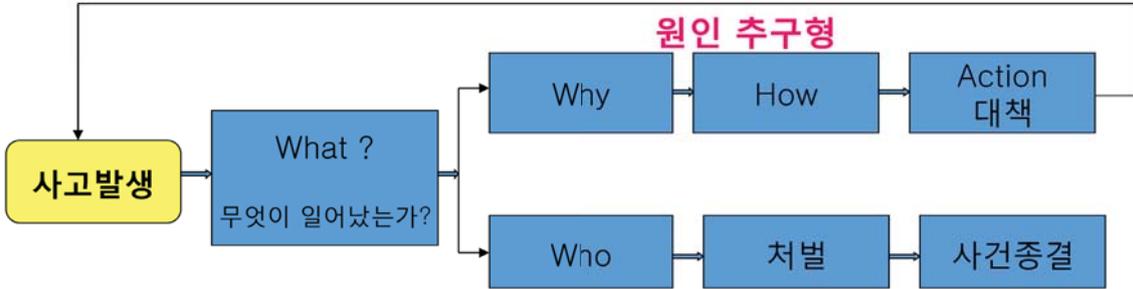
국내외 대형사고 조사 및 대응시스템 조사분석

3.1 해양사고 조사 방법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해양사고 조사방향

$$\text{Accident}(f) = a \times +by + cz + \dots$$



IMO 해양조사 코드 및 매뉴얼

해양사고 원인해석 기법



3.2 국내외 대형 교통사고(항공, 철도, 해양)조사기관의 현황분석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국가	조사기관	사고조사영역				설립 연도	관련법률
		해양	항공	철도	도로		
미국	NTSB	○	○	○	○	1967	The Independent Safety Board Act (1975년 교통부로부터 완전한 독립)
호주	ATSB	○	○	○	×	1999	교통안전조사법
캐나다	TSB	○	○	○	×	1990	Canadian Transportation Accident Investigation and Safety Act
일본	JTSB	○	○	○	×	2008	Act for establishment of the Japan Transport Safety Board (국토교통성의 외국 중의 하나)
한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	○	×	200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해양안전심판원	○	×	×	×	196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3.3 국내외 대형 교통사고(항공, 철도, 해양)조사기관의 현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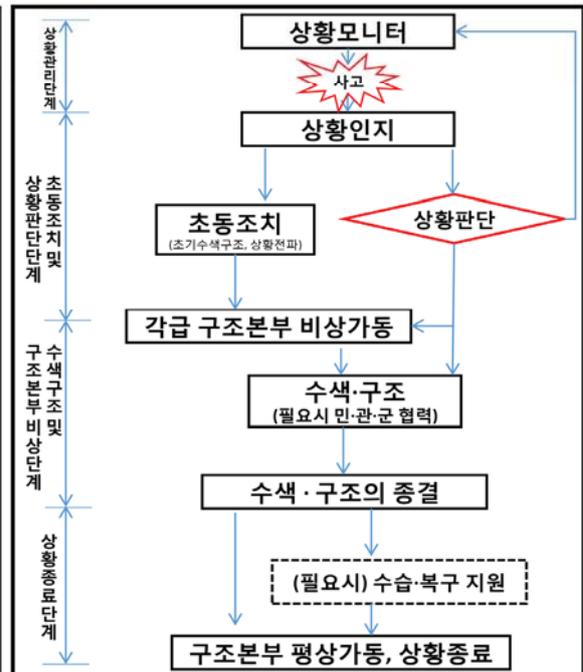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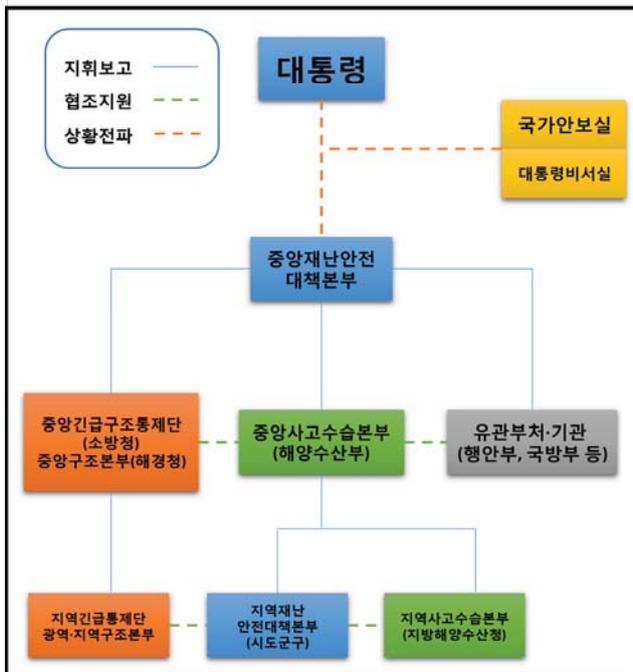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국내외 대형 교통사고(항공, 철도, 해양)조사기관의 현황분석

국가	조사기관	독립성	목적	역할 (특이점)	Remarks
미국	NTSB	연방독립 조사기관	사고조사를 통한 사고방지	교통관련 사고 및 재해 시 피해자와 가족 지원, 각 부처의 교통 재해 지원에 대한 조정	- 조사결과를 토대로 책임추궁 없음. - 모든 법정에서 NTSB 조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음
호주	ATSB	독립 조사기관	운송사고의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통한 안전조치 및 권고사항을 도출하여 운송 안전 증진	사고조사에 있어 권한의 행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누구로부터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기관의 독립성 보장 (2009년 상위 행정부처로 부터 완전 독립)	
캐나다	TSB	독립 사고 조사기구	사고조사 후 보고서 발간을 통한 안전개선	TSB에 사고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국방성 이외의 다른 정부부처는 사고 원인과 기여요인을 발견할 목적으로 사고조사를 할 수 없다는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우선성을 보장하고 있음.	
일본	JTSB	독립운수안전위원회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와 해난심판청을 통합)	사고의 원인규명 및 사고로 인한 심각한 손상의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교통 안전의 향상과 인간의 삶을 보호	피해자에 대응역할 포함: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하여 시기적절하게 사고조사에 대한 정보제공	
한국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통한 향후 유사 사고방지 및 이를 통한 인명과 재산 보호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	사고조사에 따른 사고원인 제거 및 향후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 관련자에게 "안전권고"를 명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향후 유사사고에 재발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음	12명의 위원회 중 2명의 상임위원은 규제당국인 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각각 겸임하고 있어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가 어려움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 안전의 확보에 이바지	해양사고 원인규명 (조사심판), 유사 사고 예방 (장계·권고·시정조치 등), 해양 안전 기여 (계도 및 홍보)	1963년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설치, 1971년 해난심판원으로 개칭 후 1999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

3.4 우리나라 해양재난 및 사고 대응체계 현황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3.5 국내외 국가 해양재난 및 해양사고 대응체계 비교분석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국가	일본	중국	한국
국가재난 주관	국토교통성 - 자연재해, 해양 및 항공, 테러 등	교통운수부 - 교통 및 운수 안전관련 업무 총괄	행정안전부 (과거 국민안전처) - 국가재난안전 총괄기관, 소방 및 방재, 해양 경비, 오염방제 등
해양사고 총괄	해사국 - 해양사고, 자연재해, 테러 등의 발생시, 사고에 관한 정보가 해상보안청 또는 운수국을 통하여 해사국 안전정책과로 정보 유입 - 즉 해사국 안전정책과에서 이러한 재난 내용 및 위기관리를 발원화하여 대응하고 있음	교통운수부 소속 중국해상구조센터 - 이를 통한 재난상황 총괄지휘와 운영관리업무 수행 및 해과 해결 등에 수색구조업무 지원 요청	해양수산부 - 종합상황실과 협력하여 재산상황 파악 및 초동대응 - 사고지원 및 수습현황 등 사고현장 재난상황 관리총괄
해양재난 수습본부	중앙방재회의 - 내각부를 중심으로 방재기본계획의 근거 - 자연재해: 지진, 풍수해, 화산 등 - 사고재해: 해상, 항공, 철도, 도로, 원자력 등	국가해상구조응급조직 - 응급지도조직, 운영관리조직, 전문조직, 응급지원조직, 현장지휘, 응급구조역량 등으로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비상시) - 재난경보 수집, 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시 초동조치, 사고수습, 피해상황 조사 및 종합상황관리 - 해양선박사고 수습 총괄조정 및 언론 대응
수색구조 업무	국토교통성 소속의 해상보안청 - 수색구조, 구난 및 안전업무 수행	교통운수부 - 국가해상구조응급조직을 통해 해경과 해군 등을 투입하여 수색구조 업무 수행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 - 해수면에서의 수난구조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3.6 국내외 교통사고 조사기관 및 대응시스템 조사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1 최근 대형재난사고의 원인 : 기술적 및 인적 요인에 의한 재난사고가 감소하는 반면, 조직적 요인에 의한 재난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월간 교통 통권 217호)

2 국내외 해양사고 조사시스템 및 대응체계에 대한 분석과 이를 벤치마킹 함으로써, 효율적인 해양사고 조사시스템 및 대응체계의 마련 필요

> 문헌조사 및 해외방문조사 (JTSB) 시행예정

3 해외의 교통사고조사위원회와 가장 유사한 기관인 현행 **항공·철도 조사위원회**의 기능, 범위, 운영체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해양사고 조사체계 구축"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의 식별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필요

- ✓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필요
-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고조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 ✓ 사고조사의 조사체계의 개선방안 필요
- ✓ 전문적이고, 신속 및 효율적인 사고조사를 위한 조사장비 및 시설 개선 필요
- ✓ 사고조사의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교육 및 훈련체계 필요
- ✓ 사고조사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기능 구축필요
- ✓ 해외 사고조사 기관과의 국제협력 강화방안 마련 필요

> 국내기관 방문조사 또는 자문을 통한 분석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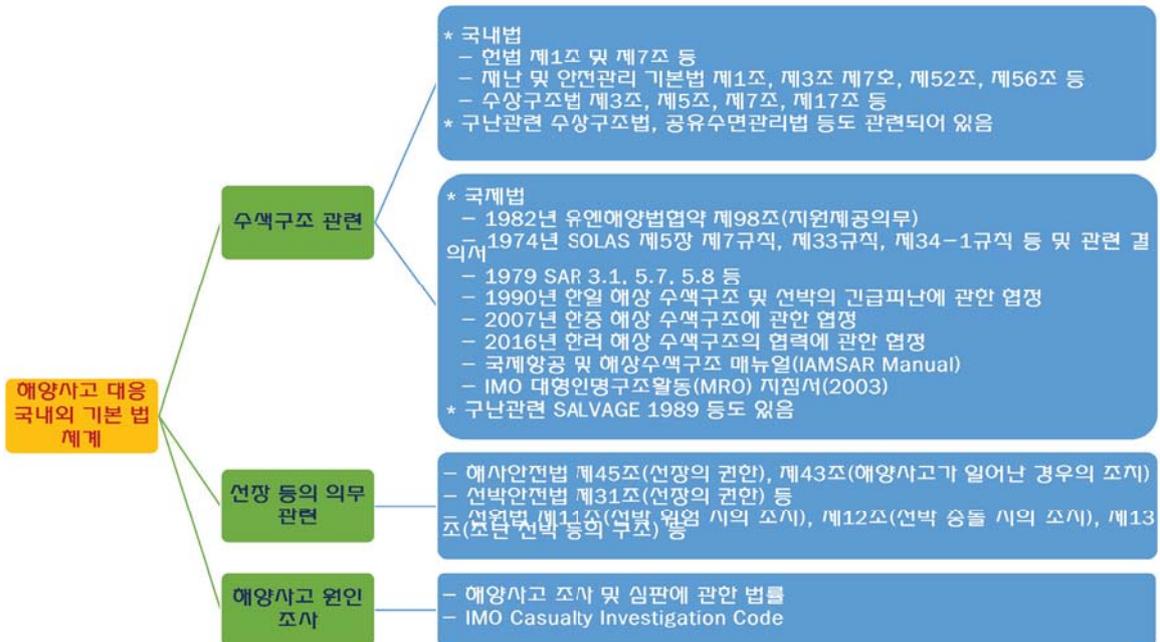
CHAPTER 4

해양사고 민간차원 대응현황조사
및 효율적 대응방안



4.1 해양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 해양사고 대응에 관한 국내외 기본 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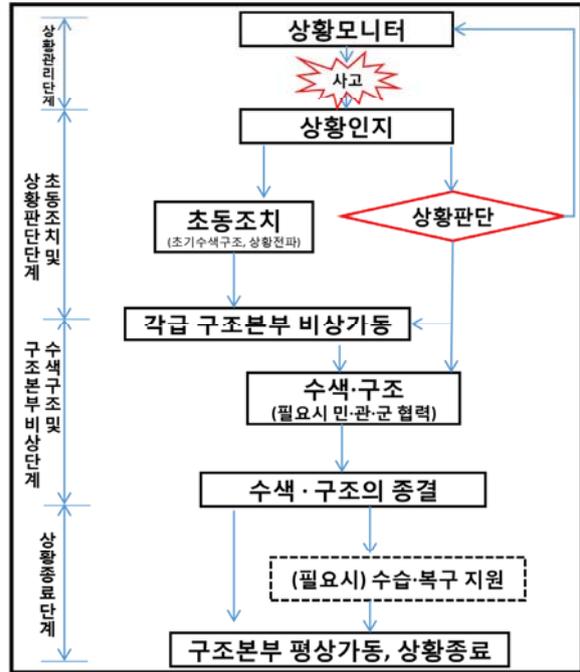


4.2 해양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 해양사고 수색구조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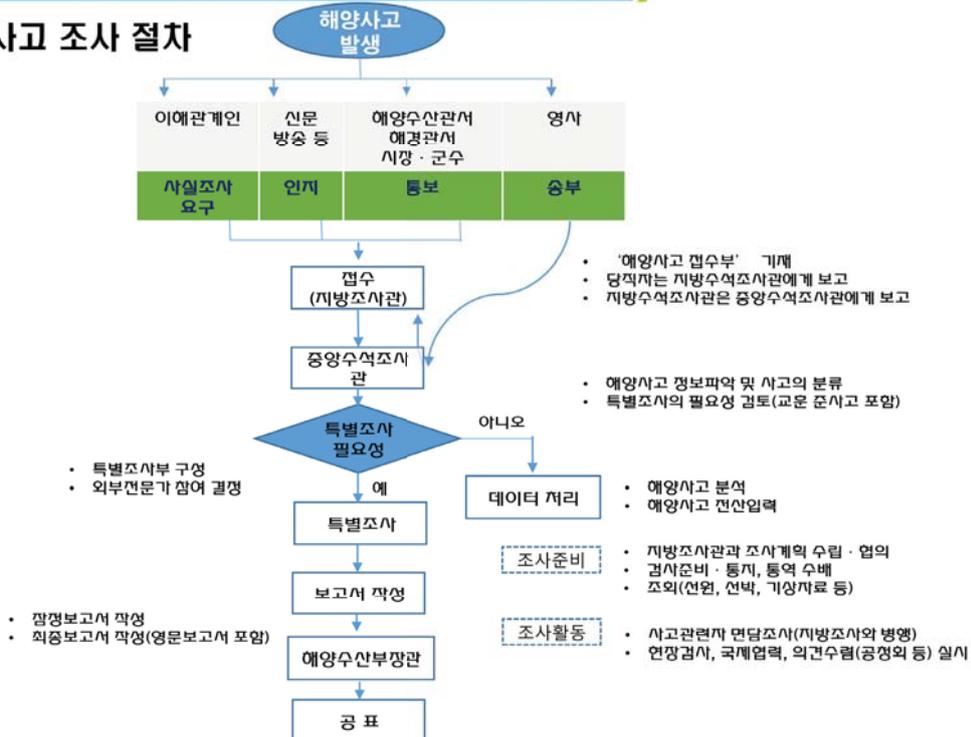
- ◆ 사고인지(상황인지) : 조난 상황 또는 긴급사태 등 상황이 존재하거나 가능성을 개인·기관이 인식
- ◆ 초동조치 : 함정·양궁기 등 수색구조세력에 아달하여 추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취하여야 할 예비조치; 이 단계는 정보의 평가와 분류, 수색구조 함정·양궁기에 대한 경보(출동 명령 등), 통신점검, 긴급 상황시 다른 단계의 관련 활동들을 즉시 수행하는 것을 포함(상황집중사 또는 함정·양궁기 등)
- ◆ 수색 : 수색구조 세력을 해양사고 현장으로 이동, 수색계획에 따라 조난선박 또는 실종자 등을 찾는 활동
- ◆ 구조 : 조난선박(양궁기) 또는 실종자를 발견하여 생존자 구조, 지원, 생존자들에게 필요한 응급진료 제공 등
- ◆ 구난 : 수색구조 활동이 종료된 후, 침몰·좌초선박 및 적재된 화물 등 제거 활동
- ◆ 사후 조치 : 수색구조 종료 후 결과 보고, 사례 연구, 사고기록의 관리 등의 조치활동



4.3 해양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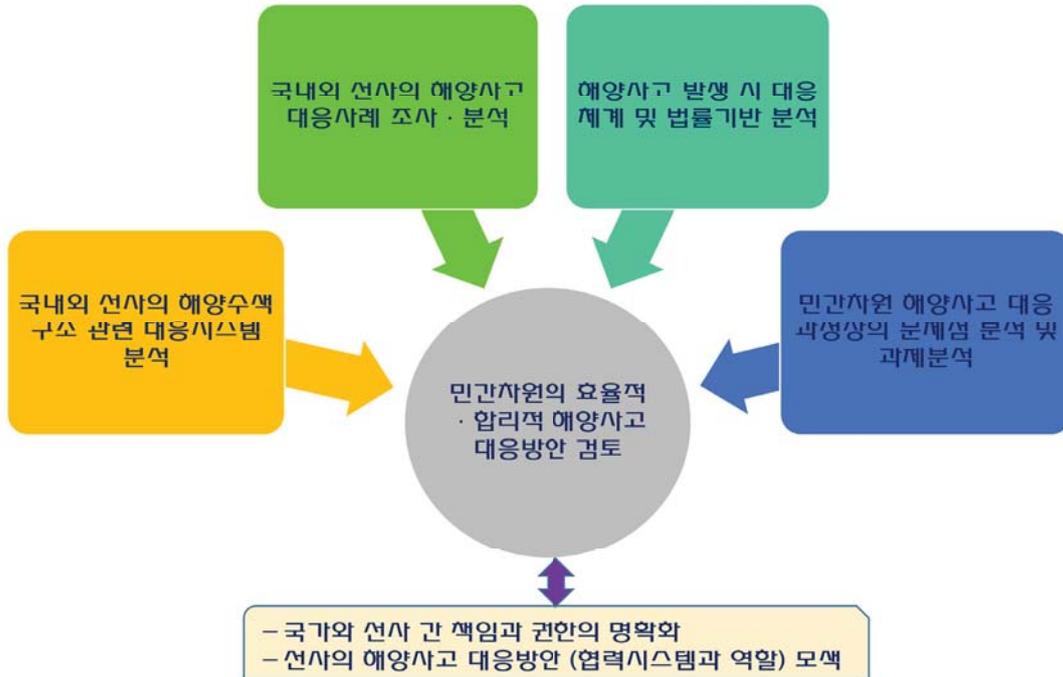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 국내 해양사고 조사 절차



4.4 민간차원의 해양사고 대응방안 제고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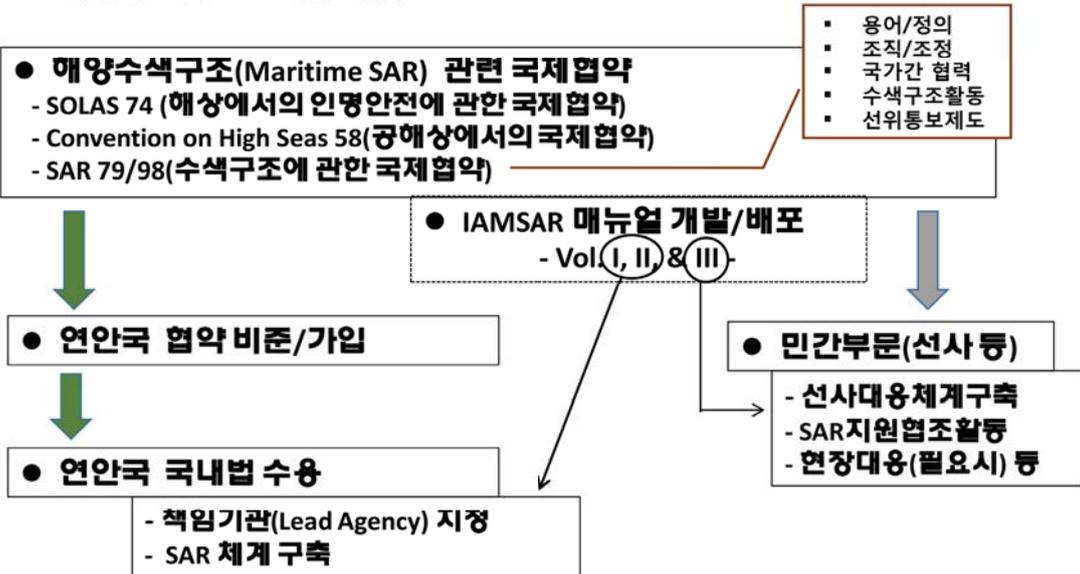
CHAPTER 5

해양수색구조 국내외 체계분석

5.1. 국제협약에 따른 기본체계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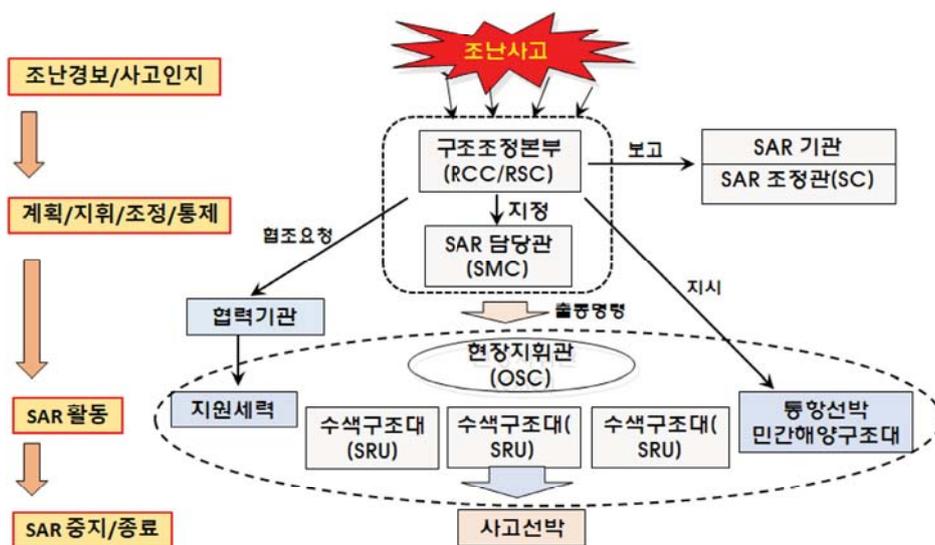
■ 해양수색구조 기본개념



5.1. 국제협약에 따른 기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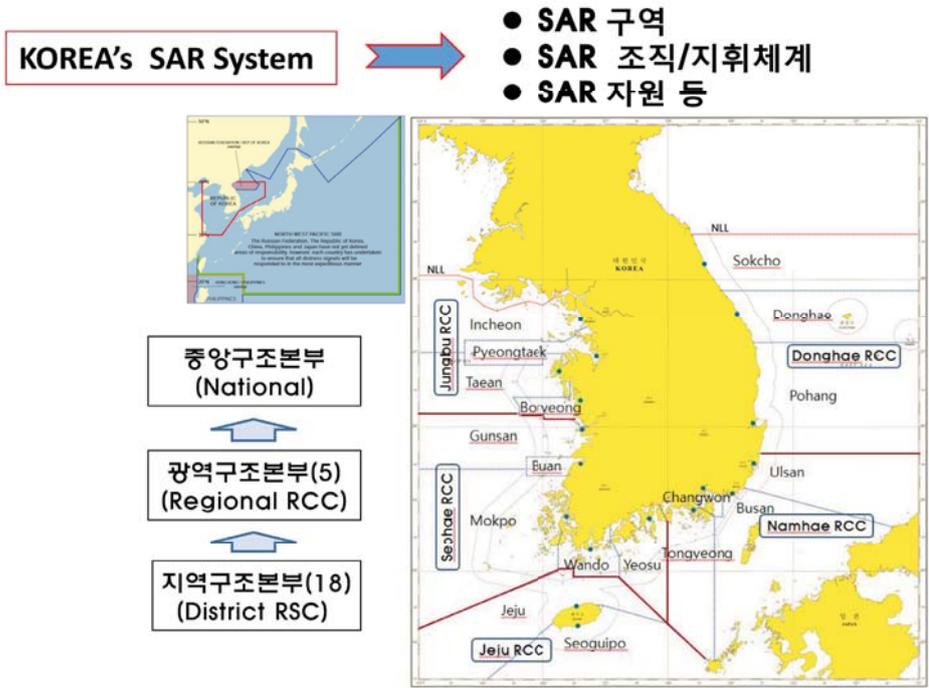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 해양수색구조 현장대응 흐름도



5.3. 우리나라 해양수색구조 시스템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5.4. 국가별 해양수색구조시스템 비교분석/시사점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 국가별 SAR 시스템 비교

- 사고접수 및 전파체계
- SAR 조직체계(Organization)
- SAR 지휘조정체계(Command & Co-ordination)
- SAR 자원(Resources)
- 민간지원세력(Volunteer)
- 기타

신속·효율적 SAR 대응을 위한 시사점 및 주요특징

About
KSA

오대양 육대주
우리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어드립니다.

CHAPTER 6

해양수색구조에 대한 선사의 역할 및 대응방안

6.1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따른 역할

■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따른 선사의 역할 조사 / 분석

▪ 수색구조시 선사의 역할 - 국제협약

조사 **분석**



- ✓ IAMSAR Manual
- ✓ SOLAS
- ✓ SAR Convention
- ✓ Convention on High Seas
- ✓ MRO Guide 등

▪ 수색구조시 선사의 역할 - 국내법

조사 **분석**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 해사안전법 등



6.2 국내선사의 해양수색구조 관련 대응시스템 분석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 선사별 해양수색구조 관련 대응시스템 조사 / 분석

▪ 대상

- 국내 선사 (대/중/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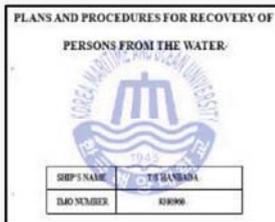
▪ 조사방법

- 방문조사
- 문헌/인터넷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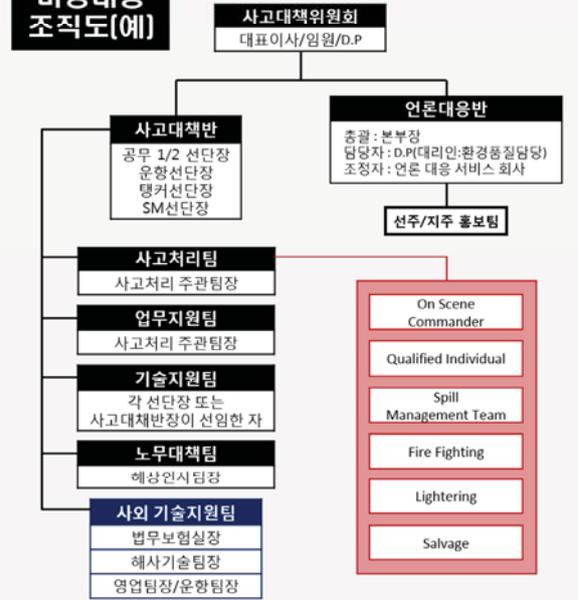


▪ 조사내용

- 책임 및 권한
- 비상대응조직
- 비상대응절차
- 비상대응업무 등



비상대응 조직도(예)



6.3 국내외 선주 대응사례 조사/분석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 국내외 해양수색구조 대응사례 조사 / 분석

▪ 대상

- 국내선사 (대/중/소형)
- 해외선사

▪ 조사방법

- 방문조사
- 문헌/인터넷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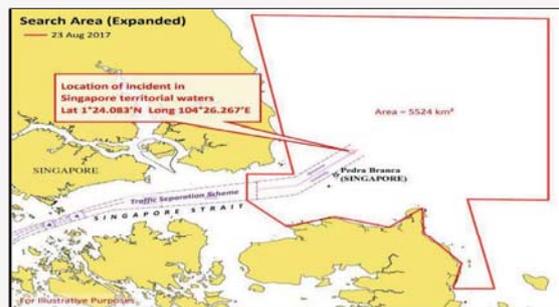


▪ 조사내용

- 대응사례
- 대응방법
- 대응결과 등



미해군 사례



스텔라 데이지호



6.4 국내선사의 효율적 조직 및 운용체계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현행 국내선사의 비상대응조직 및 운용체계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About
KSA

오대양 육대주
우려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어드립니다.

CHAPTER 7

해양사고 조사 및 대응 시스템 발전 방안

7.1 해양사고 조사기관 발전 방안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미션

독립기관으로서 해상교통안전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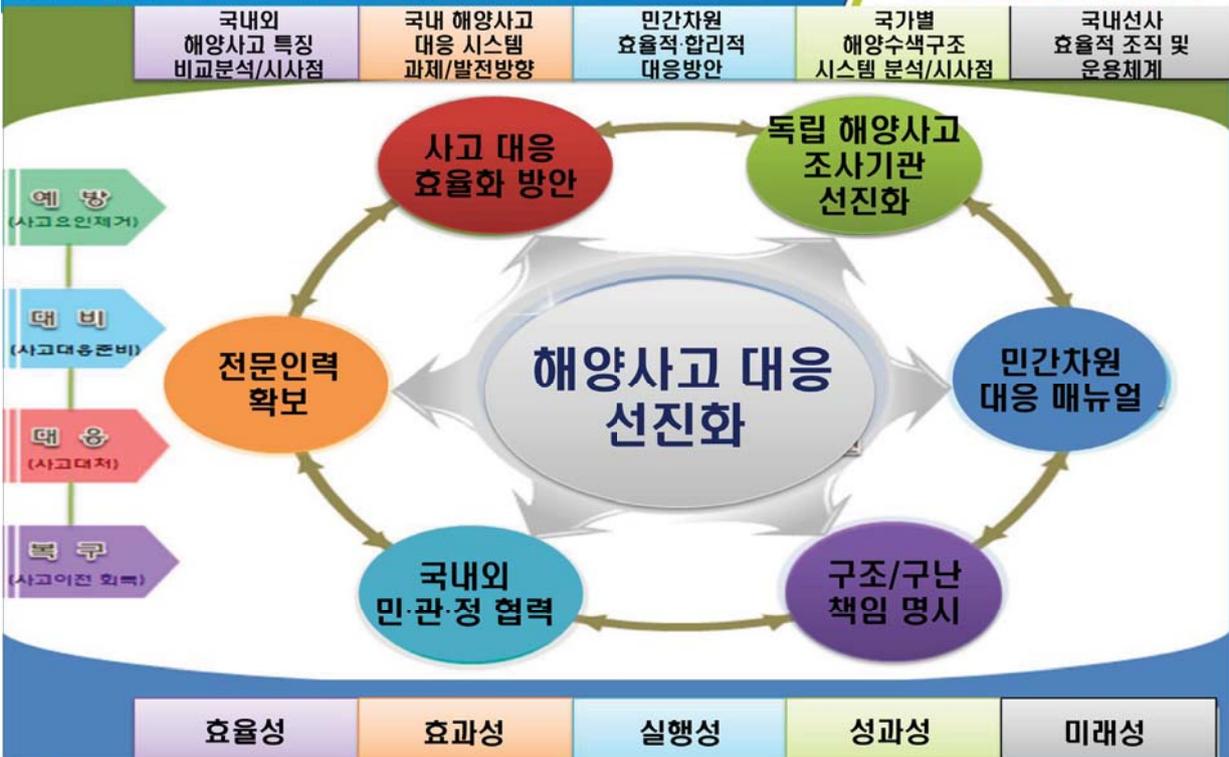
전략

- 입법화 통한 독립성, 객관성 유지
- 객관적, 정확한 해양사고 조사와 안전 연구 수행
- 유자격 해양전문인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체계 확립
- 해양안전 위한 제도, 프로그램 적극 장려
- 해양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7.2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 방안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7.3 해양사고 조사 전문인력 육성 시스템 구축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해양사고 조사 인력의 전문화

해양사고 조사 전문인력 육성 시스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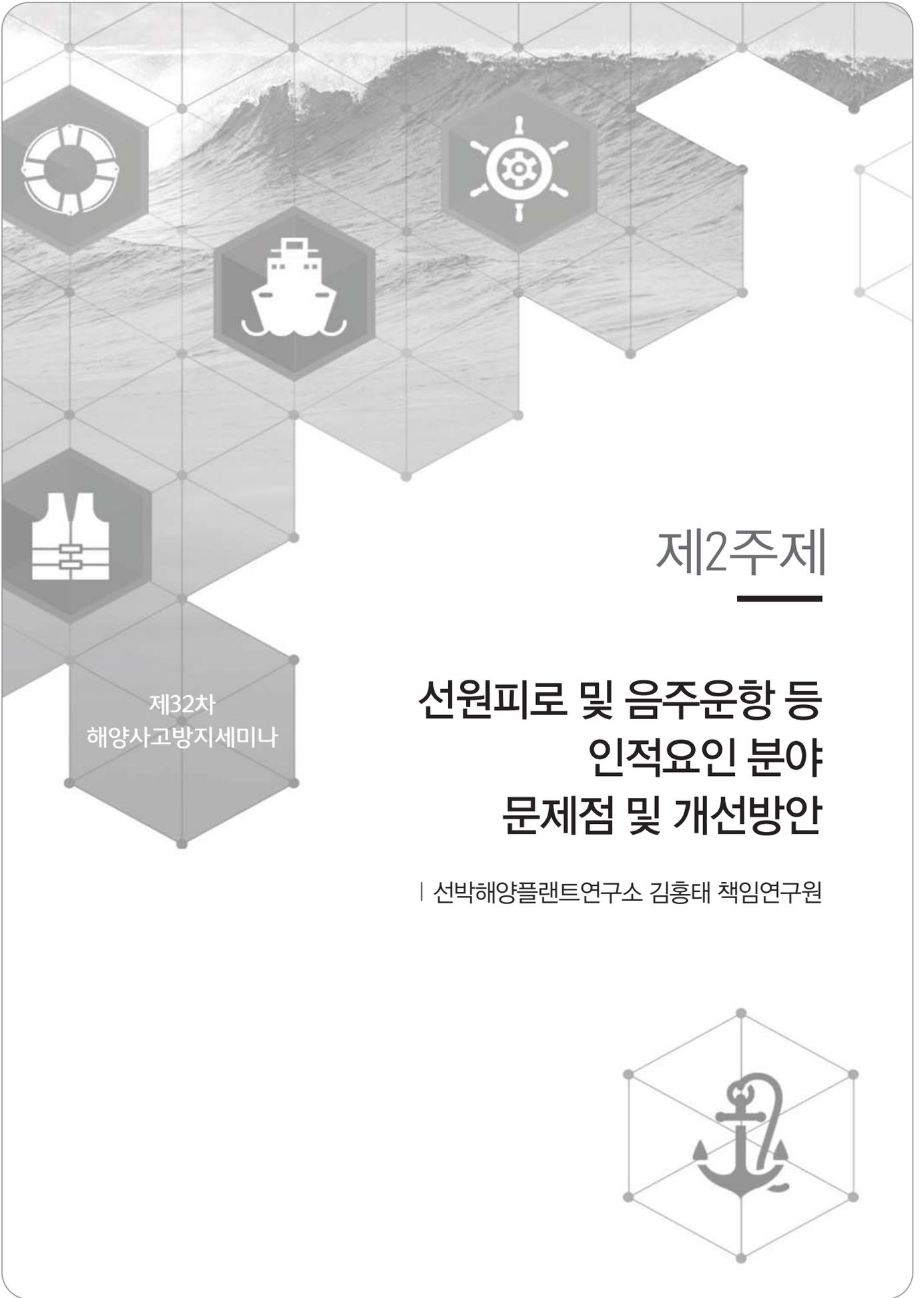


7.4 해상교통안전공단(가칭) 설립 제안

해양사고 조사/대응 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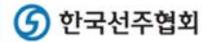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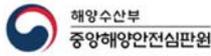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제2주제

선원피로 및 음주운항 등 인적요인 분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홍태 책임연구원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선원피로 및 음주운항 등 인적요인 분야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7. 10. 19. (목)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홍태

hongtae.kim@kriso.re.kr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발표 순서

선원피로 및 음주운항
등 인적요인 분야
문제점 및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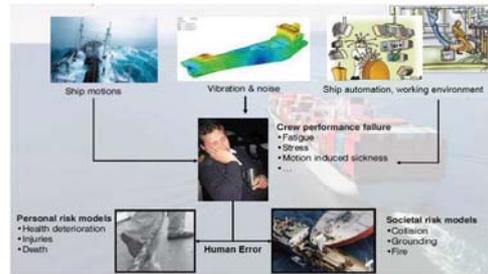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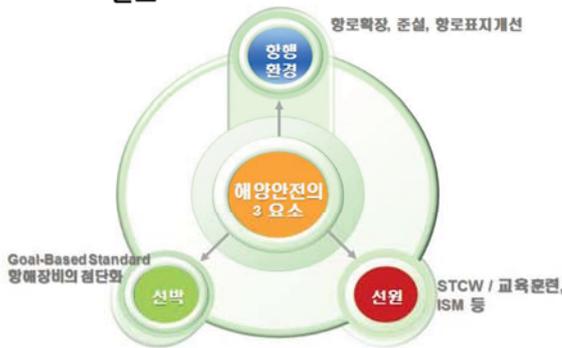
- 1. 해양안전과 인적요인
- 2. 선원의 피로와 해양사고
- 3. 음주 운항과 해양사고
- 4. 연안선 피로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 5. 뱃음말 및 정책제언



해양안전과 인적요인

◆ 선박해양분야 인적요인 관리의 중요성

- 본 연구는 국가의 해양안전도 확보를 위해서는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인 **인적오류** (80~90% 비중) **저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연구**
- 기존 연구는 특정 인적요인 제어를 위한 **단편적 대응책 개발**이므로,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요인의 정량적 평가를 통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대응 불가능**
- 근본적인 인적요인 관리를 위해서는 **종사자의 행동방식, 업무절차상 인적오류 유발요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이 요구
- 이와 병행하여 주요 인적요인으로 **기 식별된 위험요소들에 대한 과학적 관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해당 요인으로 인한 사고를 빠른 시일 내에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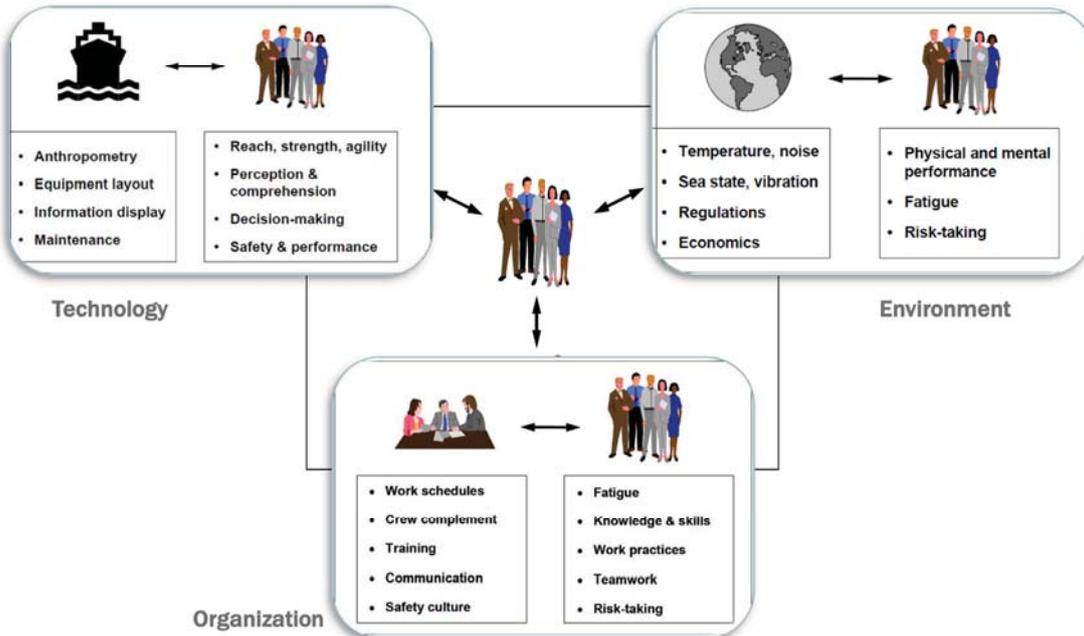


Source : www.project-horizon.eu

3/38

해양안전과 인적요인

◆ The Maritime System is a People System



Source : Rothblum, A., Human Error and Marine Safety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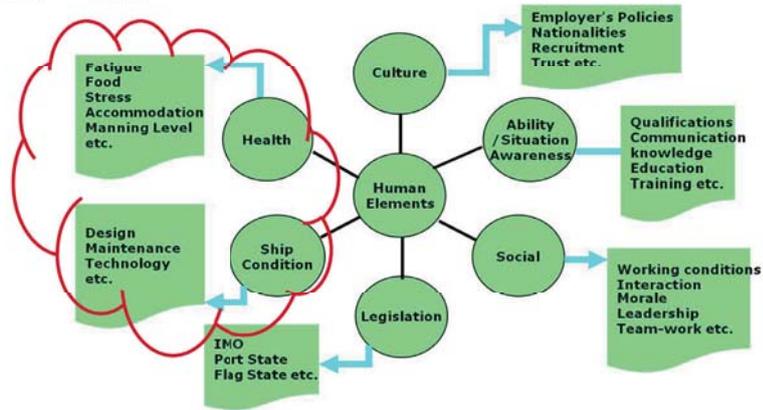
4/38

해양안전과 인적요인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 Scope of Maritime Human Factors

- IMO and Human Element
 - ISM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 1998
 - HEAP (Human Effect Analyzing Process) - 1998
 - FSA (Formal Safety Analysis) - 2001
 - Fatigue Guidance - 2001



• Source : IMO MSC 65/15/1 Annex, 1995



5/38

선원 피로와 해양사고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 고속도로 졸음 운전의 원인 => 피로 ????

dongA.com
2017-07-26 03:00:00 한민

[단독]버스업체 대표 등 4명 영장 받침... '경부고속도 7중추돌' 무리한 운행 강요

“혹독한 근무조건 사고 직접 책임”... 경찰, 기사와 함께 공동정범 첫 처벌

9일 오전 지 올음운전으로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업체 임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사고 버스인 광역급행 M5532 버스를 운영하는 오산교통 대표 최도 씨(54)와 핵심 간부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버스 인명사고가 났을 때 영주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운전기사만 형사처벌을 받았다.

경찰은 26일 최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주말까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 씨가 기사들에게 무리한 운행을 강요하고 휴식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고의적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회사 전무원 최 씨 장남을 비롯한 간부 3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하루 15~19시간씩 이틀 연속 운행하고 하루 쉬는 오산교통 기사들은 돌연가 교통로 쓰러지거나 3월 13일 경기 오산시청과 국토교통부에 두 차례 진정서를 냈다. 다음 날 시청 공무원이 오산교통을 방문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라고 지도한 뒤 수차례 관련 공문을 보냈지만 최 씨 등이 이를 고의적으로 무시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또 오산교통은 버스 1대당 기사 1.1명(버스 103대, 기사 118명)에 그쳐 무리한 운행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 버스업체는 버스 1대당 기사 1.6~2명이 있다.

경찰은 최 씨 등이 혹독한 근무 여건을 조성해 올음운전을 직접적으로 유발한 만큼 M5532 기사 김오 씨(51·구속)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임주에게 부실 운영 책임을 지우는 편래를 이끌어내 관습처럼 무리한 운행을 강요하는 버스업체에 공중을 돌리겠다는 생각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1994년 승수대교 및 1995년 서울 서초구 삼봉역의 철도 붕괴 사고 판례를 참고했다. 두 사고 모두 당시 관리감독을 맡은 고위 책임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돼 실형 후 석방되었다.



6/38

선원 피로와 해양사고

◆ 바다에서의 피로와 졸음 운전



국민일보
www.komilbo.com

피곤한 선장 '졸음운전'도 바다 위 대형사고 주요인

“졸음운전”이 해상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선사 강행하면서 선장의 졸음상태가 선박 사고의 한 원인으로 떠오르고 원의 선박 사고 판결문들을 살펴보면 어찌구무없는 졸음상태 사고...

지난해 8월 23일 오전 3시30분쯤 인천 영종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 근처에 정박 중이던 8: 아선 8호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호 선원 9명이나 다행히 모두 구조됐다. 사고는 A호 선장이 항해 중 졸면서 발견 채경서(안간판)에 따르면 그는 열쇠 어군을 훔아 이동하느라 옛 자지 못했다. 졸로 조라실에서 항해 당직을 시다 잠이 드는 바람에 승미단 8호를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

지난해 7월 8일 오전 4시30분쯤에는 경북 구룡포항 사리말동대로서 해상에서 29: 아선 C호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다. 선장은 여객선이 알간으로 제정했던 조연용 사후 만에 중단되고 귀향하던 길이었다. 구룡포항으로 벗어나려다 돌린 선장은 무리 22시간이나 잠을 차지 않 조연용이 피로가 누적됨 선원 대신 선장 혼자 차동조타 기능을 이용한 졸았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지난해 5월 23일 오전 3시54분쯤에는 경북 무포항 동쪽 해상에서 2와 15: 아선 E호가 충돌했다. 역시 졸음이 문제였다. 사고 나흘 전 조 선장은 하루 3시간 수면시간을 제외하고는 항해 당직과 조업 지휘감독으로 피로가 누적 된 상태였다. 선장은 졸음을 막으려고 TV 음향을 최대로 높인 채 항해했지만 졸다 깨기 을 반복하다 다가오는 0호를 보지 못했다.

매일노동뉴스

HOME > 노동리뷰 > 시선·사고

장시간 심야노동 시달리는 선원, 해양사고 위험 부추긴다

선원법상 1주 72시간까지 가능 ... "최소승무정원 규정을 안전승무정원으로 전환해야"

8월 28일 | 09:00 | 2014.04.23 09:00

우리나라 선원 10명 중 4명(39.7%)은 하루 수면도 못 잔다는 응답도 4%나 된다. 선원들의 수가늘성이 높다. 해양안전심판원이 2012년 8월의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 선원 48%는 "수면부족당뇨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2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선원의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인한 선원법과 맞먹는 관련이 있다. 피로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세월호 침사 1주일째를 맞은 이날 업계에서는 개선해야 해양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심판원이 2012년 발표한 '선원피로의 실태분석고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발생한 선박 충돌은 선원피로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사건은 64% 수준이다. 심판원에 따르면 미국어 사고의 인과율은 16~33%로 집계돼 있다. 이와적 최근에는 선원피로에 관심을 가지고 사고

미디어오늘

바다 위의 졸음, 사회는 감당할 수 있겠는가?

2014.04.23 09:00

오늘 날 우리 사회는 피로와의 전쟁 중이다. 간 때문이라든가 복통을 종종하는 한 학부부터, 허무런과 카페인 덩어리가 들어간 음료부터 졸음운전에 대한 강한 사회적 경고 그리고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까지 다양하다. 우리에게 피로라는 단어는 무정의 의미가 깊다. 건강악화와 사고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선원의 피로도 또한 개인의 건강관리부하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해양사고까지 낚는 원인의 핵심요인이 된다. 선원이 겪는 피로도적 현상은 피도한 업무량, 선제 전통, 잦은 외출항 등이 있다. 선박은 24시간 내내 기기가 작동하고 있고, 화물운송을 최우선의 목표로 끊임없이 고대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급변의 상황에 항상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 또한 적지 않다. 하니 선원이 겪는 피로도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강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세계 각국의 보고서에서는 선원의 피로도도는 해양사고와 직결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1996년 9월, 미국 해양감비대 연구개발센터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한 해양사고의 인과관심 중 16%는 승무원의 피로도가 원인이며, 인명피해사고의 33%에 승무원 피로가 기여하였음을 보고했다.

또한 해사분야에 관심이 높은 영국 카디프 대학의 2006년 연구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6년의 연구기간 동안 선원의 50%가 근무시간이 개인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37%의 선원은 과도한 근무시간이 선박의 안전운행에 위협한 것으로 답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 해양안전심판원이 '선원피로의 실태분석 및 해양사고와의 인과관계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선원의 피로도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 구체적인 대책방안의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선원 피로와 해양사고

◆ 선원 피로에 기인한 해양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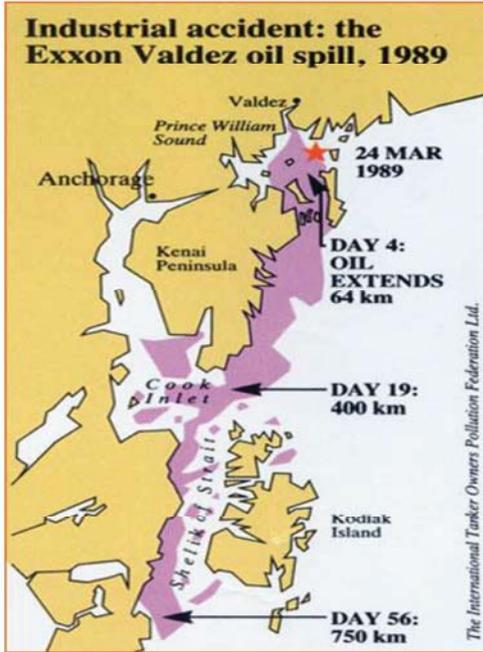
- 미국연안경비대 연구개발센터 (1996) : 충돌, 좌초 등을 포함한 중대 해양사고 중 - 승무원의 피로가 원인이 된 사고가 전체의 약 16%
- UK MAIB (2004) : 1994~2003년 10년간 전체 해양사고의 1/3에서 선원의 피로가 사고원인에 기여
- The Cardiff Research Program (2006) : 선원의 피로는 해상에서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로서, 설문에 응한 1,856명 중 25%는 당직 중에 잠이 든 경험이 있으며, 거의 50%는 일주일에 85시간 이상 업무에 종사하고, 거의 50%의 선원은 과도한 업무시간이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 Project HORIZON (2011) : 당직사관의 피로로 인한 인명, 환경, 경제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당직 시스템이 항해당직 및 기관당직 사관의 피로 및 수면에 미치는 영향



선원 피로와 해양사고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 선원 피로에 기인한 해양사고 사례 : Exxon Valdez 호 좌초 사고



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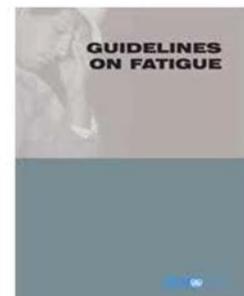
KRISO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원 피로와 해양사고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 관련 국제규정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STCW Convention	SOLAS Convention	ISPS Code
작업시간이 max 14h/24h max 72h/7days OR 휴식시간이 min 10h/24h min 77h/7days	휴식시간이 min 10h/24h min 77h/7days 당직인계	- 안전훈련 • 모든 선원이 모든 훈련에 참가할 필요는 없으나 각 선원은 매월 1 회의 훈련에 참가. • 총 선원의 25% 이상이 전월의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면 출항 후 24 시간 이내 실시 - 소방훈련 - 구조훈련	- ISM 코드 • 선장의 책임과 권한 • 비상준비 • 선박 및 장비 유지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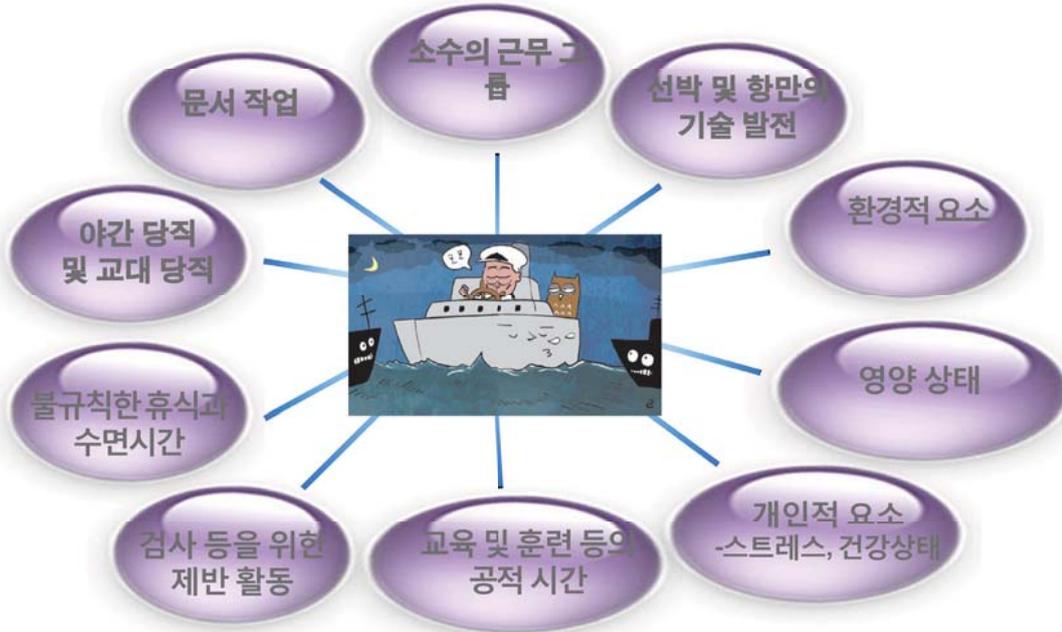


10/38

KRISO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원 피로와 해양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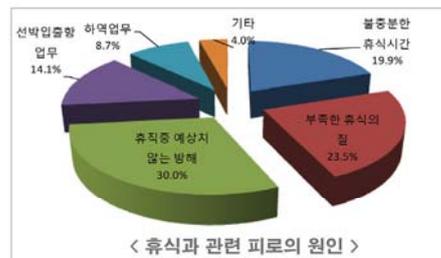
◆ 선원 피로 : 관련 요인



선원 피로와 해양사고

◆ 선종별 피로유형 분류 및 원인요소 (2012) - 중앙해심/목해대

- 설문조사 개요
 - 설문대상 인원 237명
 - 당직근무, 휴식시간, 수면, 업무부하도 등에 관한 사항 - 26개 항목
 - 피로도 자각진단 및 증세에 관한 사항 - 26개 항목
- 1일 평균 당직시간 및 수면시간
 - 외항선, 내항화물선, 여객선 : 8-10시간(당직), 6-8시간(수면)
 - 예부선, 급유선, 어선 : 10시간 이상(당직), 4-6시간(수면)
- 피로 및 스트레스 주 원인
 - 외항선, 내항화물선, 여객선 : 스트레스(장기간 업무시간, 부족한 휴식)
 - 예부선, 급유선, 어선 : 수면부족
- 일반사항
 - 전체 60% 이상 과로에 의한 피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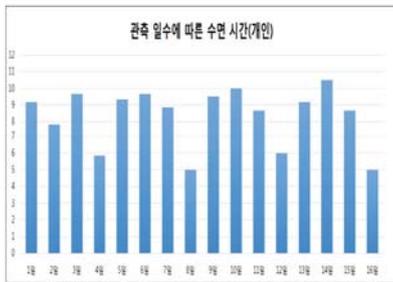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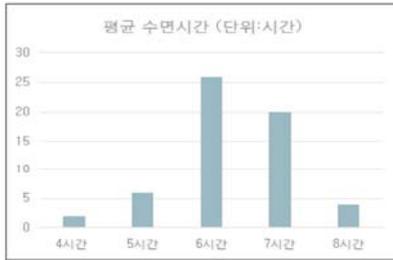
선원 피로와 해양사고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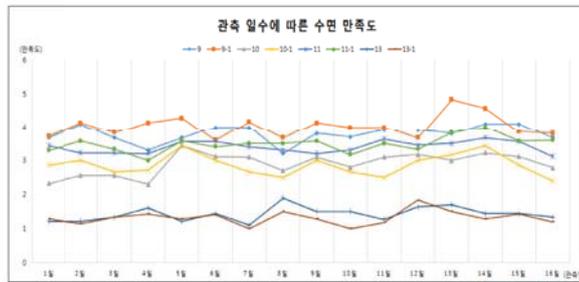
◆ 선종별 피로 및 수면 관련 설문조사 (2016) – KRISO/KIMFT

● 피로 및 수면 관련 설문조사

- 피실험자 : 오션폴리텍 실습생, 숙련 항해사, 초보항해사 약 70명
- 실험 개요 : 수면 실험 측정 설문지, 평균 수면시간, 승선 전 / 승선 후



No.	설문 내용	척도	만족도
9	지난밤의 수면에 대하여 당신의 생각은?	6	높을수록 만족도 높음
9-1	낮잠을 잤을 경우 수면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6	
10	기상 직후 머리가 개운한 정도는 어떠했습니까?	6	
10-1	낮잠을 잤을 경우 일어나서 머리가 개운한 정도는 어떠했습니까?	6	
11	긴 밤의 수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	낮을수록 만족도 낮음
11-1	낮잠을 잤을 경우 수면의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5	
13	지난 밤에 당신은 잠들기가 어떠 하였습니까?	4	
13-1	낮잠을 잤을 경우 지난 밤에 당신은 잠들기가 어떠 하였습니까?	4	



13/38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원 피로와 해양사고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 피로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2016) – KRISO

● 선원 피로 측정방법

구분	측정방법	장점	단점
Physiological measures	Electrocardiogram(ECG)	Heart Rate Variability	·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 · 정신적 부하와 육체적 부하의 영향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어려움
		Heart Rate	
		R-R interval	
	Electrodermal response	galvanic skin response(GSR)	· 측정과 해석이 쉬움
		skin potential	
		peripheral autonomic surface potentials	
	Brain Activity	Electroencephalogram (EEG)	· 지각적/인지적 부하 측정 가능 · 지각적/인지적 부하와 관계 없는 신체부위의 움직임 등에 의해 변화하는 것
		Evoked brain potentials	
		Event-Related Potentials(ERP)	
	Pupillary Response	Pupil Diameter	· 작업부하 측정에 유용
Blood Pressure			
Eye Movements	Percentage Closure of Eyes(PERCLOS)		
Respiration	Respiration Rate		
Subjective Ratings measures	Overall Workload(OW)	· 이용성 면에서 우수함	
	Modified Cooper-Harper Scale(MCH)		
	Subjective Workload Assessment Technique(SWAT)		· 방법이 복잡 · 많은 시간 요구
	National Aeronautic & Space Administration Task Load Index(NASA-TLX)	· 타당성(validity)/이용성 면에서 우수함	
	Subjective Workload Dominance(SWORD)		
	Psychophysical Scaling		

14/38

KRISO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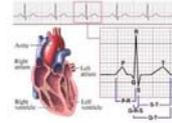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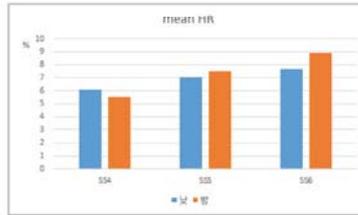
선원 피로와 해양사고

◆ 피로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2016) – KRISO

● ECG(electrocardiogram) : R-R interval, 심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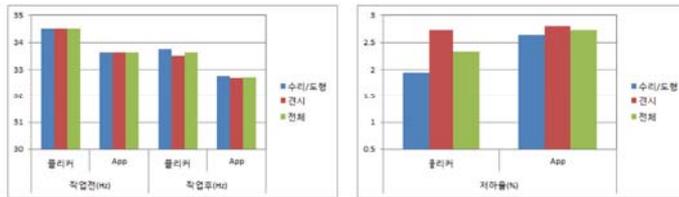
- Sea State가 높아질수록, 낮보다 밤에 심박수가 증가하였음

mean HR(%)	SS4	SS5	SS6
낮	6.102	7.032	7.681
밤	5.517	7.516	8.890



● Digital Flicker Fusion Frequency

▪ 최근에는 점멸 융합 주파수가 피질의 기능이라 밝혀지면서, 중추 신경계의 피로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음이 밝혀짐



<제시 작업별 측정도구에 대한 작업전·후의 플리커치와 저하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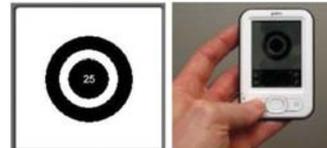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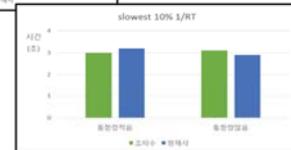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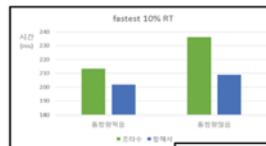


선원 피로와 해양사고

◆ 피로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2016) – KRI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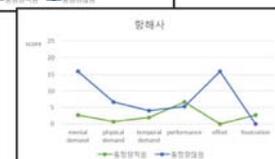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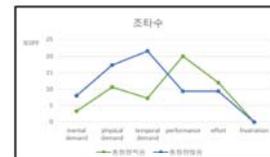
● PVT (Psychomotor Vigilance Test) : mean reaction time

- Fastest 10% RT (빠리 반응한 10% 반응시간 평균) 비교
 - 조타수와 항해사 모두 통항량이 적을 때에 비해 많을 때 반응시간이 느려졌음
- Slowest 10% 1/RT (느리게 반응한 10% 반응시간 역수 평균) 비교
 - 조타수는 통항량이 적을 때와 많을 때 유사하게 반응
 - 항해사는 통항량이 적을 때에 비해 많을 때 느리게 반응



● NASA-TLX (NASA – Task Load Index)

- 통항량이 적을 때는 정신적 작업 부하가 조타수에 비해 항해사가 더 낮게 나타남
- 통항량이 많을 때는 조타수에 비해 항해사가 더 많은 작업부하 보임
- 통항량이 적을 때 보다 많을 때 조타수는 12.3 증가, 항해사는 33.3 증가하였음



선원 피로와 해양사고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 Workload 기반 피로도 분석 (2017) – KRISO

- 정량적 피로측정 방법은 단기적 피로 측정에 유효하나, 장기적 누적피로 측정에는 적용 불가.
- Workload 기반 피로도 측정
 - IMO 피로 관리 지침서 개정의 일환으로 제출한 정보 문서에서의 업무 부하 측정 방법을 적용하였으며(IMO HTW 3/INF. 8, 2015),
 - 선박의 항만 입출항 시간을 바탕으로 항해사의 항해 및 정박 당직 근무 시간, 훈련시간, 입출항 작업 시간 등을 계산하여 1일 및 7일 단위로 업무 부하를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업무 부하가 국내외 선원 근무시간 규정 1일 14시간, 7일 91시간을 초과하는지 비교

	total duration	total call	total between ports	Drills	Watch	Mooring	Call	Safety Master	safety C/O
Work hours between 12/06 12:28 And 19/06/15 00:50	6 j 12,37h	59,05	97,32	1	48,66	12	21	0	0
	156,37	temps de travail	master	82,66	Equivalent : 14h work/ jour =	12,69	91h work/7j =	88,81	
		temps de travail	chief officer	82,66	Equivalent : 14h work/ jour =	12,69	91h work/7j =	88,81	

1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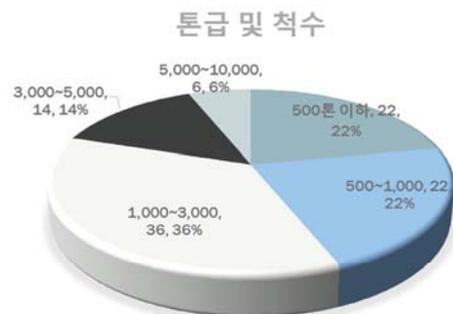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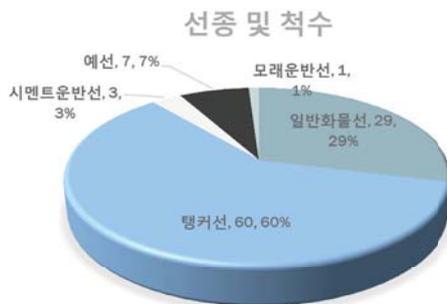


선원 피로와 해양사고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 Workload 기반 피로도 분석 (2017) – KRISO

- Target Vessels
 - 국내 항만에만 입출항을 하는 총톤수 1만톤 이하이 연안선 100척을 대상으로 약 1개월의 항만 입출항 실적 자료 분석
 - 대상 선박은 석유제품 및 화학제품 등을 운반하는 탱커선, 석탄 및 여러 종류의 화물을 운반하는 일반화물선, 예인선 등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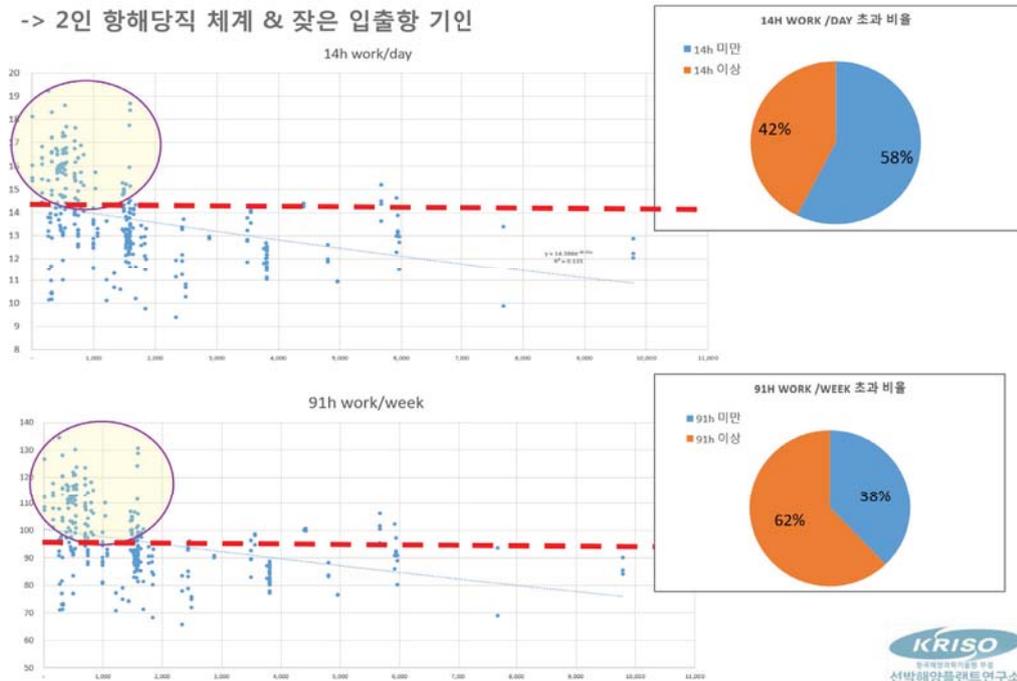
18/38



선원 피로와 해양사고

◆ Workload 기반 피로도 분석 (2017) – KRISO

- 주로 1천톤급 이하 소형선 근무 시간 증가
-> 2인 항해당직 체계 & 잦은 입출항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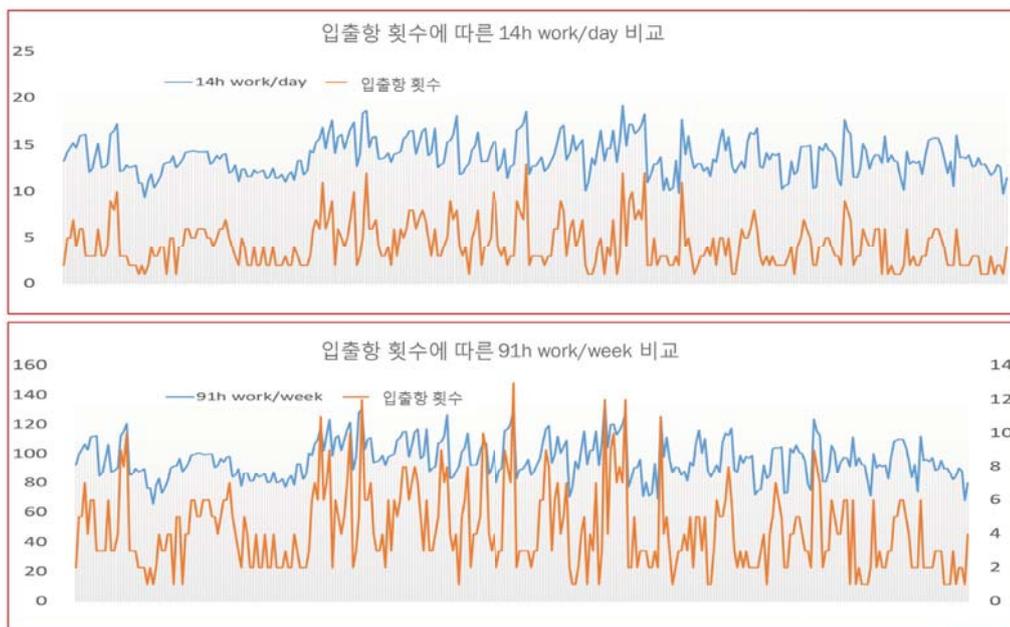


19/38

선원 피로와 해양사고

◆ Workload 기반 피로도 분석 (2017) – KRISO

- 짧은 기간내에 입출항 횟수가 증가하면 Workload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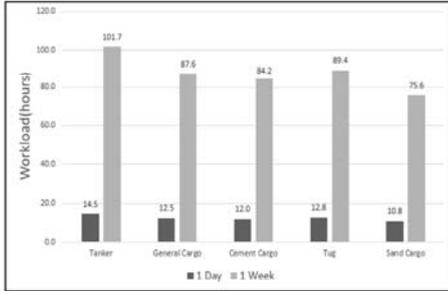


2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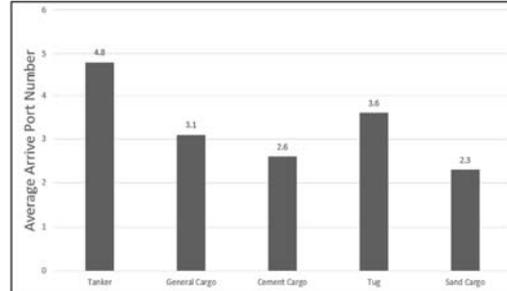
선원 피로와 해양사고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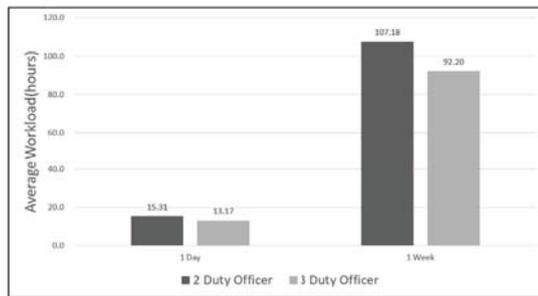
◆ Workload 기반 피로도 분석 (2017) – KRISO



[선종별 평균 Workload 측정 결과]



[선종별 평균 입출항 빈도]



[2인 및 3인 항해 당직체계에서의 평균 Workload 비교]

2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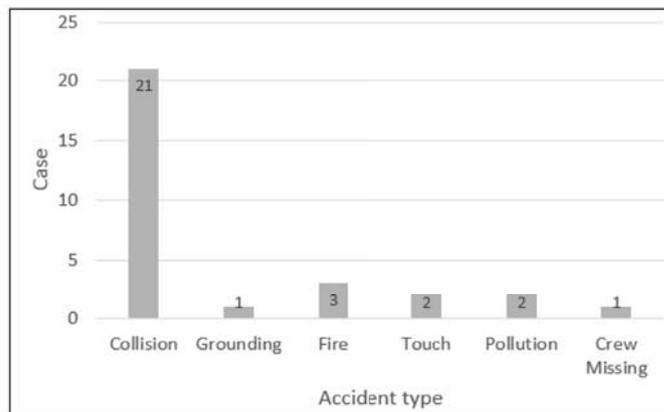


선원 피로와 해양사고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 선원 피로 기인 해양사고 사례분석

- 100척의 업무 부하 측정 연안선들에 대해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40년간 해양사고 재결서를 조사한 결과, 21척의 선박에서 총 30건의 해양사고 발생.
- 30건의 해양사고 중 7건의 해양사고에서 업무 과중으로 인한 선교 이탈, 졸음 운항, 장시간의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 업무 부하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이러한 업무 과중, 졸음, 피로 등의 원인은 주로 잘못된 당직 시간 체계, 1인 당직 근무, 승무 규정의 문제, 휴식 시간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재결서에 명시.



2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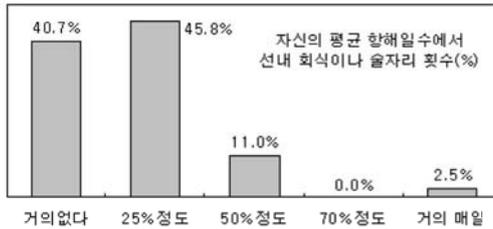
음주 운항과 해양사고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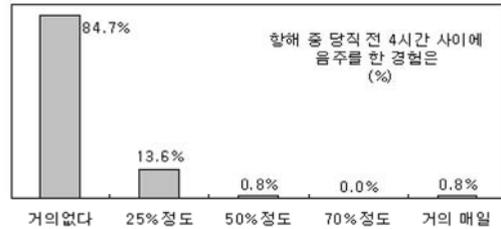
◆ 음주운항 실태조사

• 현황조사 (KRISO/해양수산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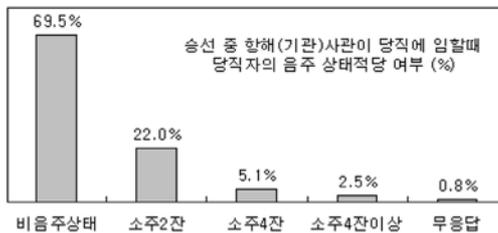
■ 선내 회식이나 술자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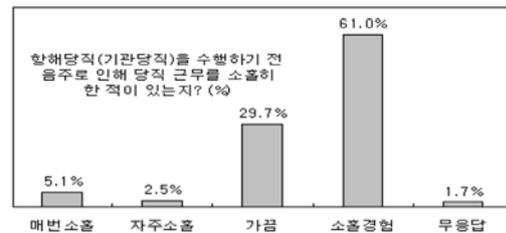
■ 당직 전 4시간 사이 음주 경험



■ 당직사관의 음주상태



■ 음주로 인한 당직근무 소홀 경험



2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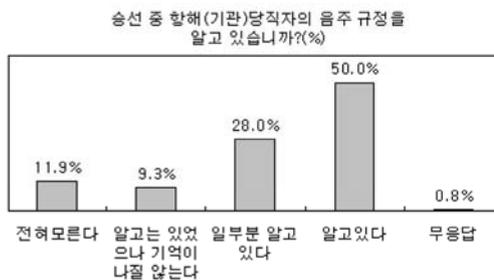
음주 운항과 해양사고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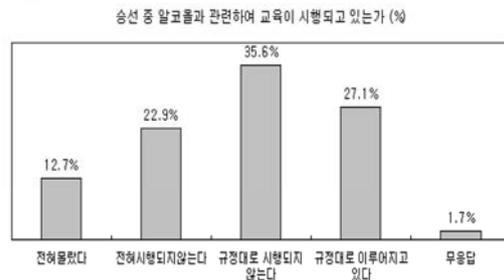
◆ 음주운항 실태조사

• 현황조사 (해양수산연구원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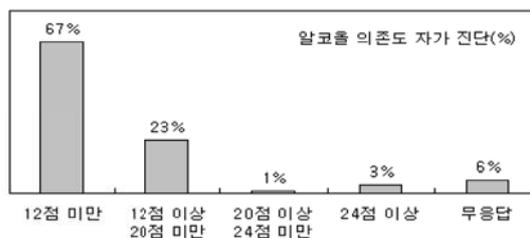
■ 당직자의 음주규정 이해



■ 알코올과 관련한 교육시행 여부



■ 알코올 의존도 자가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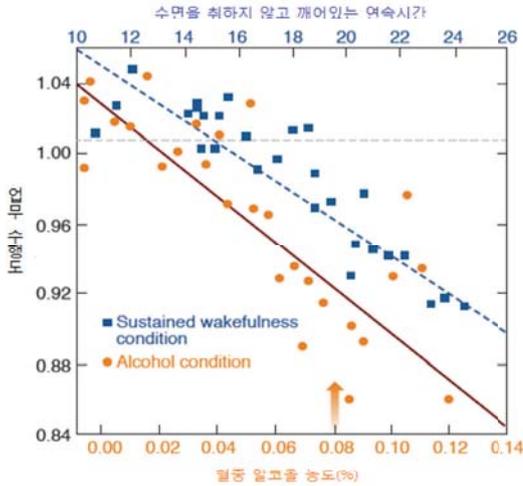
26/38



음주 운항과 해양사고

◆ 음주운항의 영향 분석

• 수면 및 음주와 업무수행도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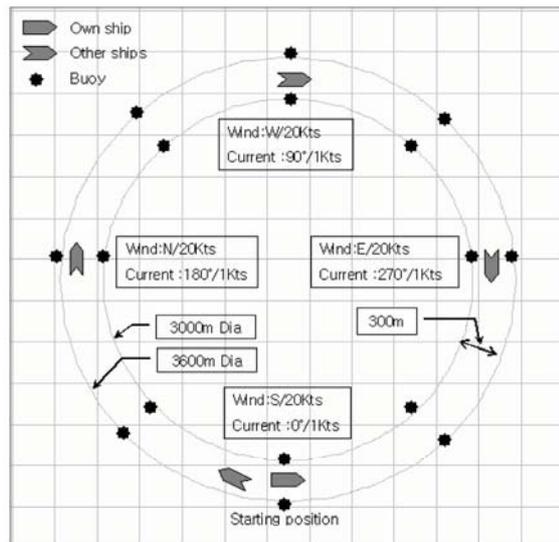
- ❖ 수면부족은 음주와 유사하게 업무수행 능력을 저하시킴
- ❖ 수면부족 시간과 음주량이 늘수록 업무수행 능력이 급락함

자료 : Understanding and Enhancing Crew Endurance, Megan L. Moundalexis, Jennifer A.B.Mckneely, William B.Fitzpatrick, and Cory C.Sheffer(2011)

음주 운항과 해양사고

◆ 음주운항의 영향 분석

• 선박운항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알코올 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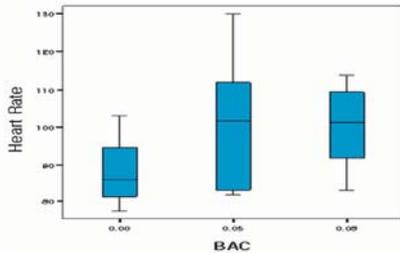
음주 운항과 해양사고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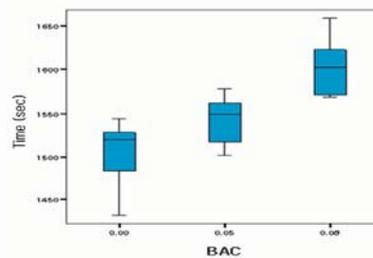
◆ 음주운항의 영향 분석

• 선박운항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알코올 영향 분석 - 항해사관 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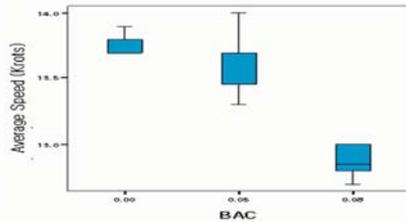
■ 심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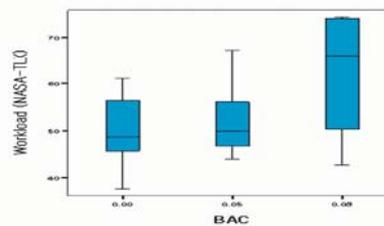
■ 총 운항시간



■ 평균 속도



■ Workload (NASA-TLX)



29/38



음주 운항과 해양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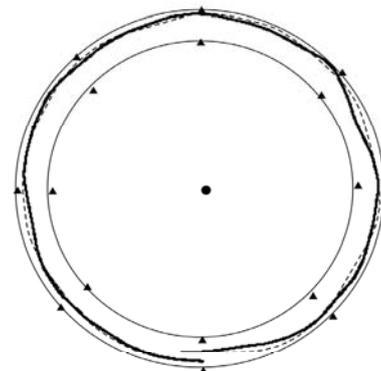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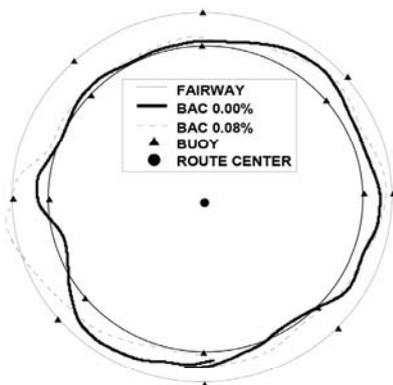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 음주운항의 영향 분석

• 선박운항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알코올 영향 분석

■ 항해사관 8명에 대한 음주 전 후 평균궤적

■ 도선사 음주 전 후 궤적



3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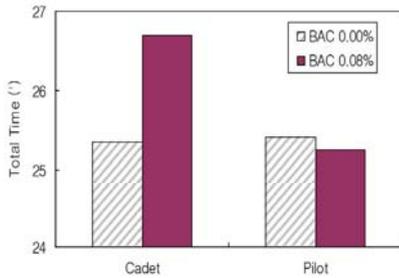


음주 운항과 해양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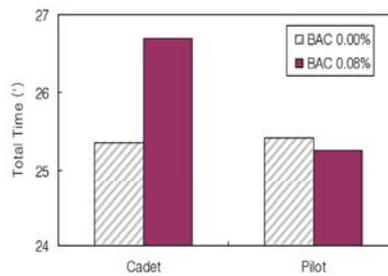
◆ 음주운항의 영향 분석

- 선박운항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알코올 영향 분석

■ 평균 운항시간 비교



■ 총 운항시간



■ 실험 결과(實驗結果)

- 학생 8명에 대한 음주 전 후 평균 운항 궤적(average voyage track)에서 전체적으로 궤적의 평균반지름(average radius)과 표준편차(STDEV)가 BAC 0.08%에서 더 큼.
- 도선사의 경우 음주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BAC 0.08% 경우 평균 반지름과 표준편차가 더 크게 나옴.
- 시뮬레이션 경과시간에서 학생의 경우 BAC 0.08%일 때 수행시간(voyage time)이 오래 걸렸으며, 평균선속(average speed)도 BAC 0.08%일 때 감소함.

31/38



연안선 피로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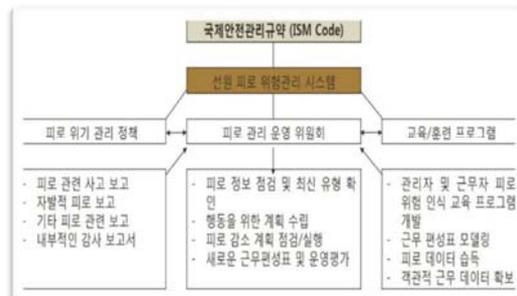
◆ 해상 피로 위험관리 시스템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 1990년대 들어 조직적인 접근을 통해 피로로 인한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 확대
- 실제적인 피로 관련 위험을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FRMS 제시
- FRMS는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피로 관리를 위한 매뉴얼과 시스템을 구축 운영
- FRMS의 구성

- 선원 피로 위험관리 시스템 실행 규정
- 선원 피로 정보 수집 및 분석 S/W 개발
- 선원 피로 자가 보고 체계
- 사고시 피로의 영향 분석
- 피로의 관리 교육
- 피로의 지속적 측정 관리

• FRMS의 이점

- 피로데이터 기반 실제적 위험 요소 측정 및 분야별 관리 대책 수립
- 피로근무 시간외에 다양한 피로의 원인 확인 및 피로 관리 방안 제공
- 근무 시간, 작업 부하 등 업무와 관련된 요인 외에 직원 개인의 생활 습관도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종사자들이 인식
- 피로의 원인을 밝혀 사고 발생 전에 위험 요인 방지



3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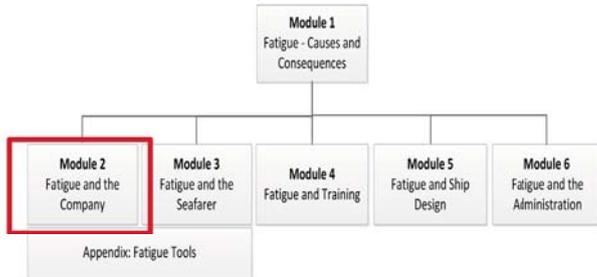


연안선 피로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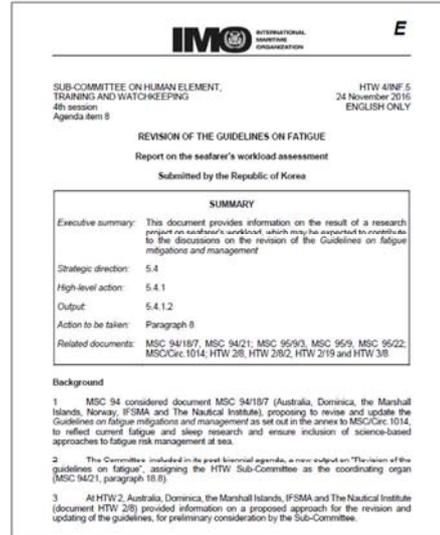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 해상 피로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 IMO Fatigue Guidance 검토 및 개정 참여 – 2017년 1월 HTW4 의제문서 제출



- 선사는 피로 위험 관리를 위해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함
- 본 지침에서는 피로 위험 관리 원칙의 도입을 권장함
- 선사에 의해 피로위험관리 조치 확인,
 - 피로 위험 식별 및 평가
 - 피로 위험 관리 문서 개발/구현
 - 피로 교육 및 중요성 인식
 - 적절한 자원
 - 건강한 선상 환경



3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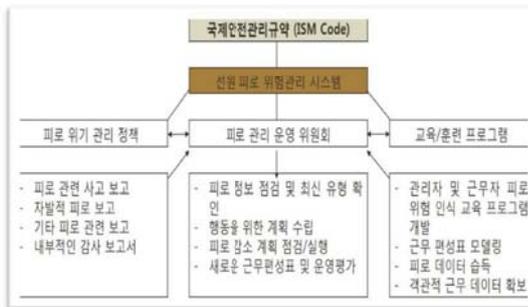


연안선 피로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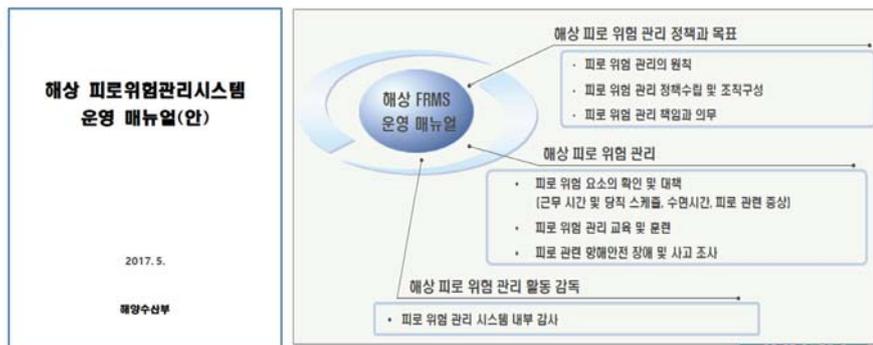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 해상 FRMS의 Framework 및 운영 매뉴얼

- 기본 Framework



- 운영 매뉴얼



34/38



연안선 피로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 해상 업무부하 측정 도구 - Visual ISM 연계



35/3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안전박해양플랫폼연구소

연안선 피로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 해상 업무부하 측정 도구 - Visual ISM 연계



36/38

KRISO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안전박해양플랫폼연구소

맺음말 및 정책제언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 선원 피로 개선을 위한 제언

- 안전승무정원 및 선원피로 관리를 위한 명확한 목표 재정립 필요
 - 선상업무/관리업무 및 정상/비상상태를 고려해 안전한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충분한 선원의 승선 필요
- 해사노동협약(MLC)의 현실화를 위한 선사의 노력 필요
 - 선주는 선원의 권리를 존중해 선원이 선내에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관리
 - 휴식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고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휴식시간 규정의 중속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중속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승부정원을 증원
- 연안선 피로도 위험관리 시스템 (FRMS) 활용
 - 연안선 선원의 피로 위험관리시스템을 선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
 - ISM과 연계한 피로도 및 워크로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적용 필요
- 국적선 안전관리수준의 지속 유지를 위해 정부의 역할
 - 선원의 건강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고 승무정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수 있도록 선원의 실제 근로시간을 조사
 - 연/근해 노후선이 신조선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유도 및 선박자동화시스템의 확대 필요

3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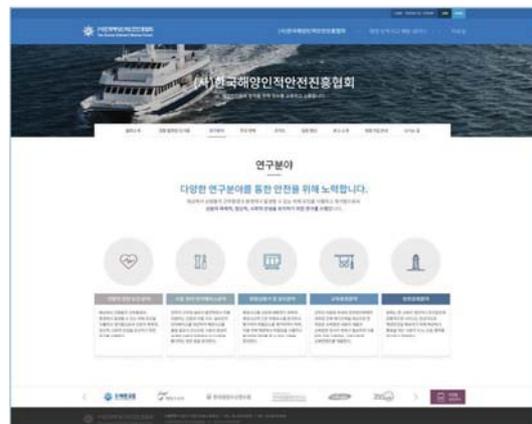


맺음말 및 정책제언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 (사)한국해양인적안전진흥협회 (<http://www.hu-marine.org>)

- 2016년 5월 해양 분야 인적요인에 대한 연구, 조사를 통해 안전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연구 성과의 전파를 통해 인간중심의 안전 경영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해양 안전 증진 기여를 위해 설립.
- 주요사업
 - 해양인적사고 예방세미나 개최 (년2회)
 - 전문가 워크숍 (년 4회)
 - 해양인적안전진흥협회 소식지 발간
 - 해양인적안전 관련 용역 수행 및 정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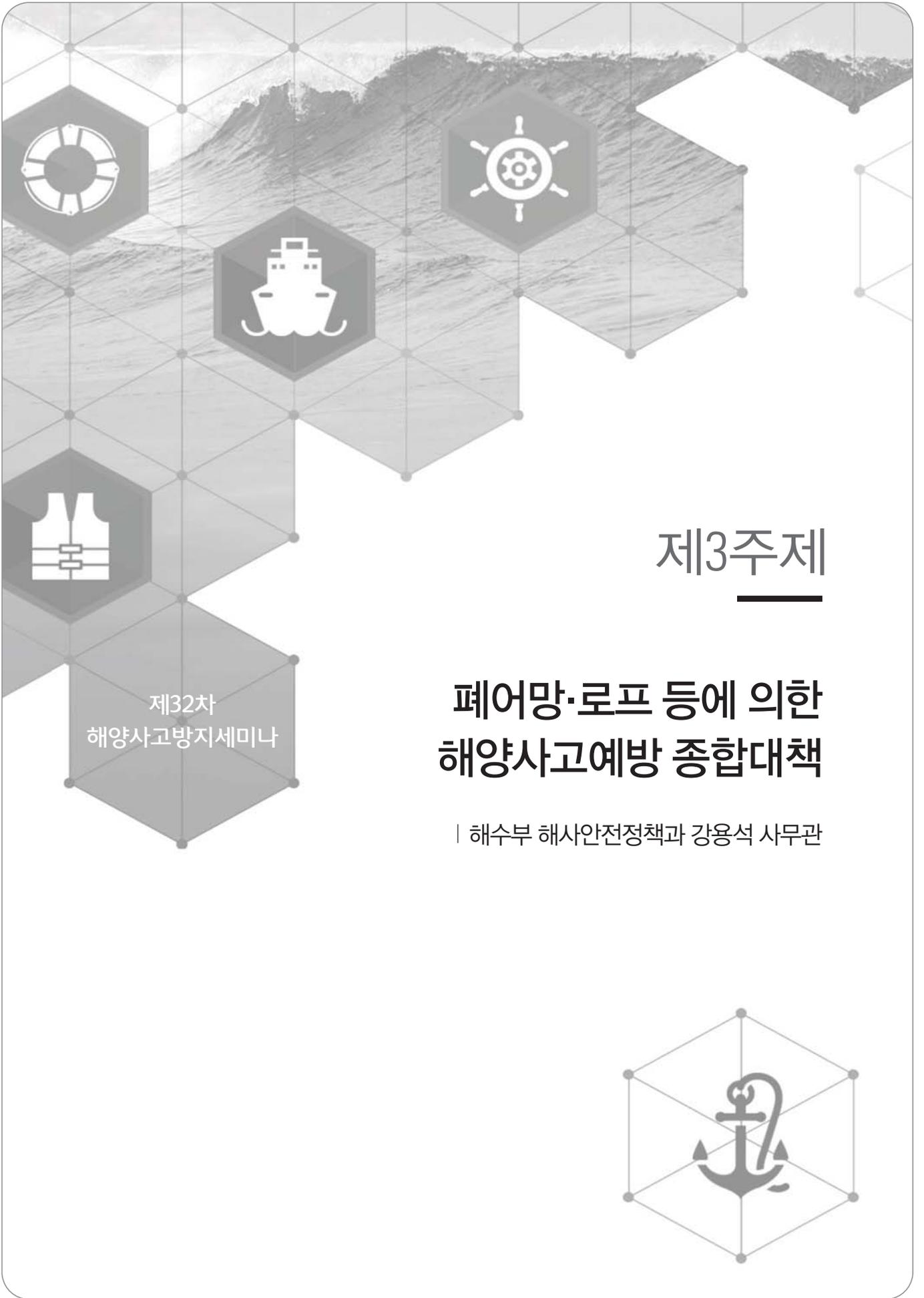
38/38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제3주제

페어망·로프 등에 의한 해양사고예방 종합대책

|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 강용석 사무관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즐거워야 해양안전!

페어망·로프 등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 종합대책

2017. 10.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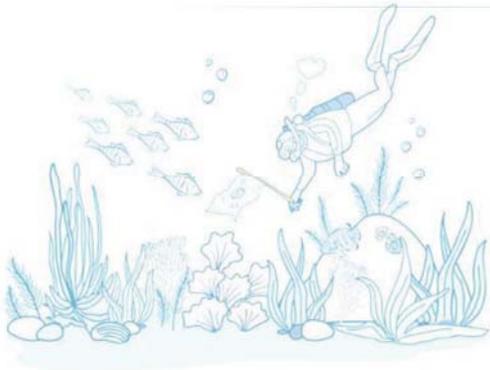
발표자 : 해양수산사무관 강용석

목 차

- I 추진배경
- II 국내외 대응 현황
- III 추진 방향
- IV 추진 대책
- V 향후 계획



I 추진 배경



추진 배경

● 사고 현황

2016년 **폐어망·로프로** 인한 연안여객선 운항 저해사고 : **총 54건**

➔ 연안여객선 사고 102건 중 52.9% 차지

◆ **주당 평균 약 1회** 사고 발생, 계속 증가 추세

* ['14년] 165건 → ['15년] 249건 → ['16년] 279건

◆ 서·남해안에서 주로 발생하나, **전국 연안의 공통적 문제로 대두**

< 폐어망 등 여객선 추진기 감김사고 현황('16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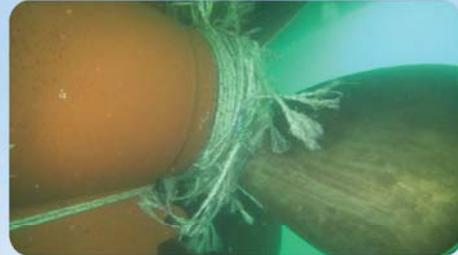
구분	합계	인천	당진	목포	완도	여수	통영	강원(포항)	제주
사고건수	54	19	3	7	2	2	5	15	1
선박척수	34	10	3	6	1	2	4	7	1

* 같은 선박에서 중복 발생한 사례가 있어 사고건수와 선박척수가 다름

추진 배경

총력! 해양!

● 페어망·로프 감김 사례



5

추진 배경

총력! 해양!

● 잠재적 위험성 - 사고예방 조치 필요

페어망 등이 추진기에 감기는 경우 대부분 **운항지연**에 그치지만,

➔ 기상악화시에는 **대형 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성** 상존

① 추진력이 상실된 상태로 횡방향에서 파도를 맞을 경우
선체 전복 우려

② 추진기가 2개인 선박에서 한쪽 엔진이 갑자기 정지될 경우
급선회 발생

③ 기관 및 동력전달 장치(클러치 등) **고장** 유발



6

추진 배경

승인 배경!

● 폐어망 등으로 인한 대형해양사고 사례

< 연안여객선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 ('93.10.10, 사망 292명, 구조70명)



과승, 과적에 따라
복원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운항 중
한쪽 추진기축에
니일론 로프가 감기자
선체가 회전하면서
횡방향 파도에 의해
복원력 상실

7

추진 배경

승인 배경!

● 폐어망 등으로 인한 대형해양사고 사례

<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 > ('15.9.5, 사망 15명, 실종 3명, 구조3명)



로프가 추진기와 타에 감겨
조종능력이 저하되고,
너울성 파도에 의해
선체가 기울며 복원성 상실

* 20mm 로프 스크류 1회,
사프트 4회 감김
[중해심 특별조사보고서]

8

안전·예방!

II 국내외 대응 현황



국내외 대응현황

안전·예방!

● 해외 현황

페어망 등 추진기 감김사고



전세계 해역에서 발생

IMO 등 국제기구, 주요국가



사고예방 정책 활동은 미미



국내외 대응 현황 - 해외현황

<p>일본</p>	<p>- 사고사례 없음. 로프커터 설치에 관한 규정도 없음 [국토교통성, 수산청]</p>
<p>중국</p>	<p>- 페어망 등 사고자료 없어, 범국가적 예방 대책 없음 - 지방항만(상해 등)에서 페어망 투기금지 캠페인 산발 실시(주재관)</p>
<p>미국</p>	<p>- 연평균(96~99년) 어선 100척당 약 1척이 페어망 감김 등으로 12시간 이상 운항지연 되거나 예인 [MAIB 특별보고서] * 어선 100척당 0.90척(96년), 1.01척(97년), 0.98척(98년), 0.89척(99년)</p>

국내외 대응 현황 - 해외현황

- **UNEP**(유엔환경계획, 환경전담 정부간기구)
 - 해양폐기물(Marine Litter) 투기를 전세계적 문제로 인식,
 - 환경보전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 중

↓

[1] Regional Seas Programme[RSP] : 전세계에 13개의 RSP가 구성
①지역별 해양쓰레기 현황분석 ②행동계획 수립 ③관련당국이나 전문가 회의 구성 ④청소의 날 행사 실시 등

[2] Global Programme of Action[GPA] : 1995년 100개국 이상이 비준하여 채택, 회원국의 독자적 또는 회원국간 협력하여 육상기인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과 연안 환경보호 활동을 지원

국민해양!

국내외 대응 현황 - 국내현황

● 국내 현황

페어망·로프 감김사고에 대한 **직접적 예방대책 없이**,
어자원 보호·환경정화 목적의 **간접사업 추진 중**



◆ 서해훼리호 사고 이후 여객선에 **일시적으로** 로프커터를 설치,
→ 부작용(성능미달 제품 유통) 등으로 **추진 중단**

* [어선] 일부 자자체, 어선 약 300여척에 로프커터(미국산) 설치(13~15년) 지원

◆ 항만내 부유쓰레기, 수중 침적물 수거사업(해양환경관리공단),
수중침적 페어구 수거사업(어촌어항협회 - 연안어장환경개선) 등 **실시 중**

13

국민해양!

Ⅲ 추진 방향



14

추진 방향

총력! 해양!

● 그간 동향

“원인물질 수거(제거)활동” 만 **산발적**으로 추진



- ◆ 원인물질인 폐어망 등 발생억제 및 수거는 어족자원 · 환경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주로 어장인근 해역에 국한하여 추진
- 그 외 일부 선박안전 등을 위해 무역항내 정화사업 추진

- ◆ 선박(특히, 여객선) 자체 사고방지 장치는 로프커파 등의 효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미흡하여 정책에 반영하지 못함

15

추진 방향

총력! 해양!



16

해양쓰레기
예방·감염·정화!

IV 추진 대책



17

추진 대책

해양쓰레기
예방·감염·정화!

추진 목표

부유쓰레기 발생 및 감김사고 억제로 대형인명사고 제로화

추진 전략

- 해양쓰레기 발생 및 투기금지 제도 도입
- 효과적인 제거(수거) 및 관리 체계 유지
- 다중이용선박의 감김사고 예방 장치 설치 의무화

18

추진 대책

* 4개 분야, 12개 세부과제 (7개 부서 합동, 1개 과제는 추진완료)

1 발생억제

- ① 어구관리법 제정
- ②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

2 제거(수거) 활동강화

- ① 연안어장 환경사업 개선
- ② 항로상 침적쓰레기 집중 수거
- ③ 청항선 이용 여객선 주요항로 부유물 제거
- ④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 활성화

추진 대책

3 선박 자구대책

- ① 여객선 로프커터 효과성 조사 및 설치 확대
- ② 로프커터 효용성 연구 및 설치 의무화 검토

4 종사자 의식개선 등

- ① 종사자 의식제고 활동 강화
- ② 해상부유물 감김사고 통계관리 강화
- ③ 사고위치 현황도 제작·배포 [완료]
- ④ 효율적 수거방안 및 선형개발 정책연구

추진 대책 - 원인물질 발생억제

총력! 해양! (Red handwritten-style text)

1. 원인물질 발생억제



추진 대책 - 원인물질 발생억제

총력! 해양! (Red handwritten-style text)

● 폐어망·로프 발생 억제를 위한 어구관리법 제정 추진(국회 계류 중)

※ 정책방향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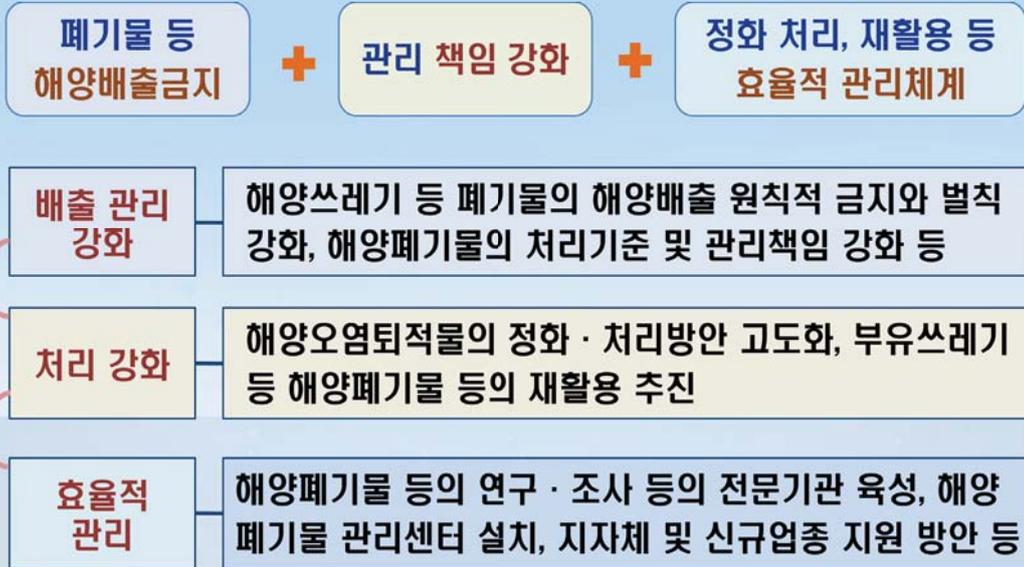


생산/유통 관리	어구의 생산·제작업 등록, 생분해성 어구 등에 대한 친환경 인증, 체계적 유통관리를 위한 어구판매업 신고
사용 관리	새 어구, 폐어구 및 유실된 어구 수량 신고, 어구실명제 도입 및 유실·불법 투기어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수거 관리	어업인에게 폐어구를 집하장까지 이송토록 의무 부과, 국가의 폐어구의 수거·처리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추진 대책 - 원인물질 발생억제

공백·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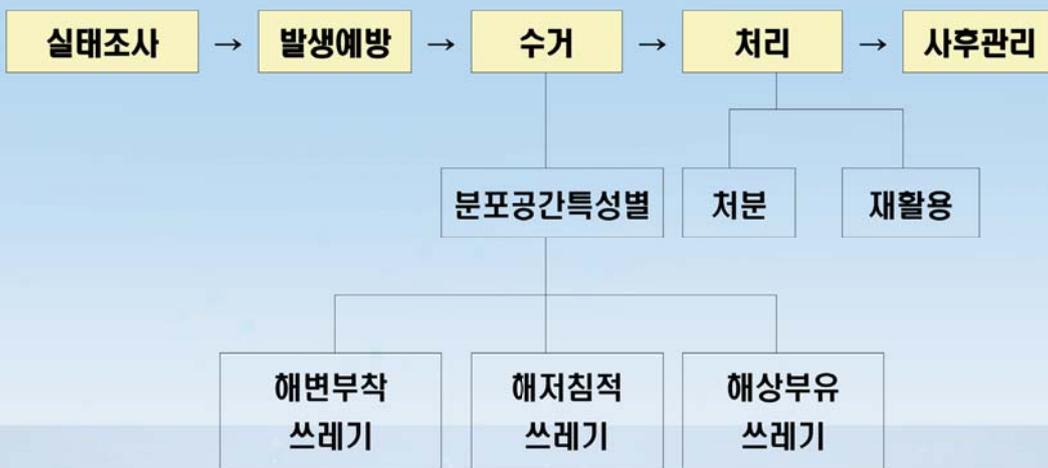
●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 추진



23

추진 대책 - 원인물질 발생억제 - 해양폐기물 관리법 구성 체계

* 법률명칭 :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해양환경관리법」을 '원인, 공간, 대상' 관리를 위한 법률로 분리, 체계화 추진
- ** 해양환경 오염·훼손의 주요 '원인' 이 되는 물질 중 ①해양배출 폐기물 ②해양쓰레기 ③해양오염퇴적물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 제정

24

추진 대책 - 제거활동 강화 총력! 해양!

**1. 연안어장
환경사업 개선**

* 수산자원정책과

**2. 항로상 침적쓰레기
집중 수거**

2. 제거(수거)활동 강화



**3. 청항선 이용 여객선
주요항로 부유물 제거**

**4.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 활성화**

* [2~4] 해양보전과

25

추진 대책 - 제거활동 강화 총력! 해양!

● 원인물질 발생 현황

1.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 총량

구 분		물량(톤)	비 고
연간유입량	발생량	176,807	육상기인 118,437, 해상기인 58,370
연간유출량	수거량	68,278	유입량의 38.6%, 현존량의 44.8%

2. 해양쓰레기 현존량

합 계	해안쓰레기	침적쓰레기	부유쓰레기	비 고
152,241톤	12,029	137,761	2,451	현재까지 누적잔존량

* 출처 :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13.12)

26

추진 대책 - 제거활동 강화

올해 해양! *(Red text)*

●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 개선



◆ **[사고지역 포함]** '17년도 사업추진시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에 페어망·로프 감김사고 지역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 (26개소 중 11개소)

당 초	추 가
산란·서식지 등 수산자원 회복 필요 구역, 생계지원 및 수산물생산성이 높은 지역, 시·군 경계 및 도서지역 등	페어망·로프 감김 어선 사고 다발지역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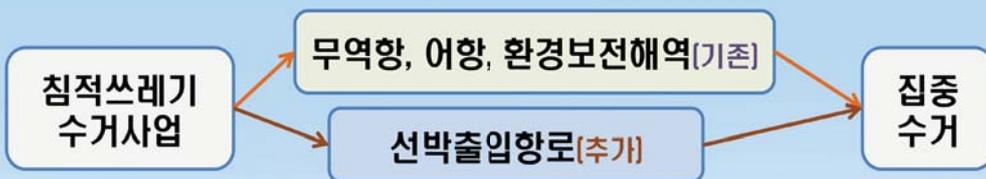
<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 실적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거량/사업비	1,832톤/52억원	1,832톤/52억원	1,813톤/52억원	1,888톤/52억원

추진 대책 - 제거활동 강화

올해 해양! *(Red text)*

● 선박출입항로 침적쓰레기 집중수거



◆ **[출입항로 집중수거]** 사업구역 설정 및 추가시 선박 안전운항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역 설정 및 집중수거 추진 (연중)

- 주요 항만 및 해역의 선박출입항로 수중 장애물 제거

* ([17 해양폐기물정화사업계획] 사업대상 중 106개소 중 경기 평택·당진항, 인천 연안해역 등 22개소에서 3,499톤 수거

** [장소별] 항만 7개소 2,392톤, 여객선 항로 9개소 797톤, 도서 벽지 항로 6개소 310톤 수거('17 예산 81억원)

추진 대책 - 제거활동 강화



● 청항선을 이용한 여객선 주요항로 부유물 제거



◆ [사업지 확대 및 청항역량 강화] 연안여객선 주요 항로 대상
항만밖 항로까지 확대 · 운영하고, 노후 청항선(6척) 대체(연중)

- * 인천, 여수, 마산, 목포 등 여객선 항로가 긴 해역은 출동주기 조정
- ** [대체지역] 부산 1, 인천 2, 동해 1, 포항 1, 제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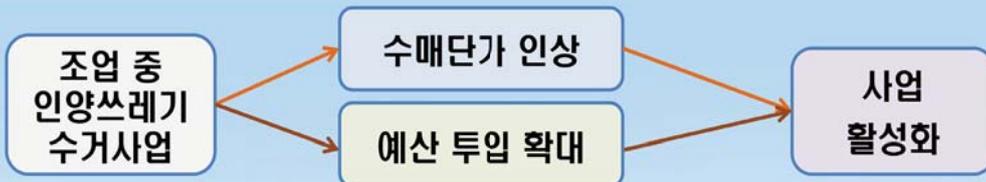
- 청항선이 2척 배치된 항만(여수, 마산, 인천항)은 통항로 부유물 제거에 1척 배치, 청항선의 여객항로 순찰횟수 증가

- * 근거리 : 월 1회 → 주 1회, 원거리 : 분기 1회 → 월 1회

추진 대책 - 제거활동 강화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 활성화



◆ [수매단가 인상 및 예산확대] 인양된 쓰레기 수매단가 인상 및 지자체의 '18년 예산 확대 편성, 국비 분담예산 확보 노력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개요 >

- 수매대상 : 페어구 · 페비닐, 통발어구, 페스티로폼 등
- 대상/형태 :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16) : 4,256백만원 (국가보조 2,218, 지자체 부담 2,128)
- 수매단가 인상계획 : 2021년까지 현 단가의 2배 수준으로 인상 추진
 - * 페어망 등 수매단가(마대 100리터 기준) : '16년(1만원) → '18년(1.5만원) → '21년(2만원)

승인! 안전!

추진 대책

3. 선박자구대책

여객선 로프커터
효과성 조사, 설치 확대

* 연안해운과

로프커터 효용성 연구,
설치 의무화 검토

* 해사안전정책과



31

승인! 안전!

추진 대책 - 선박자구대책

- 여객선 로프커터 효과성 조사 및 설치 확대

여객선(2척)
설치 운영

➔

효과성 분석

➔

전체 보조항로 여객선
설치 확대(26척)

로프커터 설치	보조항로 여객선 2척에 로프커터 시범 설치('16.3~) * 장자웨리호(군산-말도, '16.3), 뉴어청웨리호(군산-어청도, '16.9)
효과분석	로프커터 설치 여객선의 해상부유물에 의한 감김사고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1년간) 후 효과성 분석(연안해운과)
설치 확대	효과성 분석 결과에 따라, 보조항로 여객선(26척)에 우선적으로 설치* 검토(방침결정: '17. 10~)

* 국고여객선 건조예산 중 안전설비 교체예산(연간 1억원) 활용, 순차적으로 설치

32

추진 대책 - 선박자구대책

승인·발령!

● 로프커파(Rope Cutter) 시제품 예시



< Blade Type >



< Scissors Type >

33

추진 대책 - 선박자구대책

승인·발령!

● 로프커파(Rope Cutter) 시제품 예시



< 선박 추진축 설치 >



< 로프커파 시연 >

34

추진 대책 - 선박자구대책

● 로프커파(Rope Cutter) 테스트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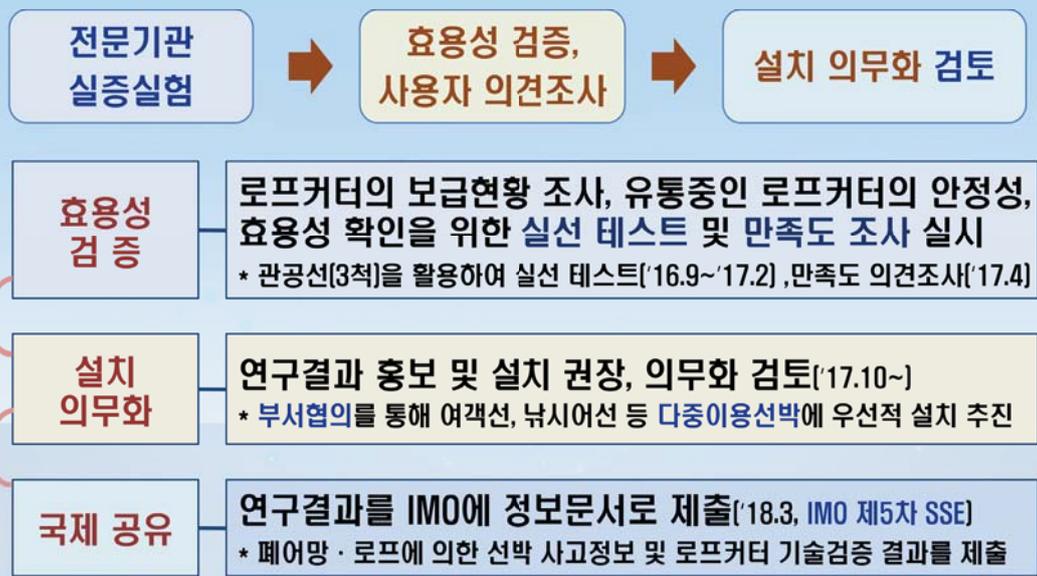


로프커파 동



추진 대책 - 선박자구대책

● 로프커파 실선테스트, 효용성 검증 연구 및 설치 의무화 검토



추진 대책 - 실선테스트 결과(16.9~17.2)

공백·부족!

◆ 3종의 선박을 각각 시험

- 대형(300~1,000톤), 중형(50~100톤), 소형(50톤 미만)

	1차 테스트 (2016.09.22.)	2차 테스트 (2016.09.30.)	3차 테스트 (2016.11.11.)
대상 선박명	창명3호(평택청)	항만정화1호(KOEM)	해양1호(군산청)
톤수	436 톤	79 톤	38 톤
테스트 해역	인천	부산	군산
커터 타입	F4(175~225mm)	F3(140~175mm)	F2(120~140mm)
로프/어망 종류	• PP/PE 로프 각 10mm, 20mm, 50mm • 나일론 어망 5mm	• PP/PE 로프 각 20mm, 40mm, 50mm • 나일론 어망 5mm	• PP/PE 로프 각 20mm, 40mm, 50mm • 나일론 어망 5mm
출력	930kW*2대	992kW*2대	882kW*2대
회전수	380rpm(220rpm, Dead)	1800rpm(680rpm, Dead)	2100rpm(700rpm, Dead)

< 시험방법 -1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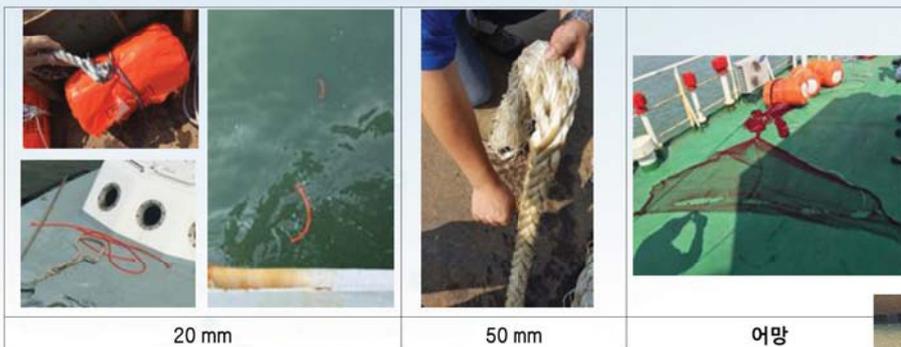


37

추진 대책 - 실선테스트 결과

공백·부족!

◆ 1차 테스트 후 절단된 로프·어망 사진



20 mm

50 mm

어망

◆ 1~3차 테스트 결과

- 창명 3호(F4) : 50mm 로프 절단 양호
- 항만정화 1호(F3) : 절단 양호 [추진기 하부 구조물로 인해 로프 유입 잘 안됨]
- 해양1호(F2) : 가는 로프는 절단 양호, 굵은 로프는 절단이 잘 되지 않음

※ 직경이 작은 로프커터(주로 F2) → 굵은 로프 절단에는 한계



38

추진 대책 - 로프커터 사용자 만족도조사 결과(17.4)

홍남기

- ◆ 설문대상[93명] : 어선 79[85%], 관공선 8, 여객선 3, 레저선박1, 기타 2
- ◆ 설문조사 측정항목[28항목] : 일반사항 및 종합적 만족도[편의성, 효과성 등]
- ◆ 조사결과
 1. 대부분[87척, 94%]의 선박이 최근 3년 이내 로프커터를 새로 설치·운용
 2. 80명[86%]가 로프커터가 작동이 잘 되고 있음
 3. 약 80%의 사고 저감을 보임. 설치 전 연 평균 약 6.2회 감김사고가 있었으나, 설치 후에는 약 1.3회 정도로 감김사고 발생.
 4. 설치 의무화 : 71명[71%]가 의무화에 동의[18명 : 정부 지원 수반시 동의]
 5. 대부분[94%]이 만족한 상태[전체 평균 만족도 7.51, 매우 만족 시 10점]

➔ [종합 판단] 효과성에는 만족, 설비 비용에는 부담

추진 대책

오염퇴적물정화사업

홍남기

1. 종사자 인식제고
활동 강화

* 수산자원정책과

2. 감김사고
통계관리 강화

* 상황실, 중앙해심

4. 종사자 인식개선 등

3. 사고위치 현황도
제작·배포

* 중앙해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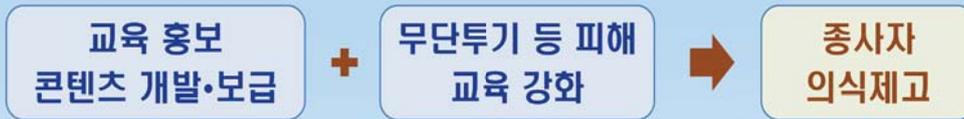
4. 효율적 수거방안과
선형개발 정책연구

* 해사안전정책과

추진 대책 - 종사자 의식개선 등

종별·지역별

● 어업인 등 해양종사자 의식제고[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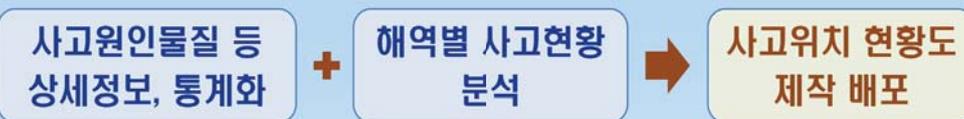
교육추진 — 동영상·그림 등 시각적 자료를 활용한 교육교재 개발
 → 해양종사자 대상 지속적 교육·계도

홍보 강화 — 인기 블로거 등 SNS 홍보, 옥외광고, 공영방송 다큐멘터리, 기획기사, 기고문 등 대국민 홍보 콘텐츠 개발·보급

추진 대책 - 종사자 의식개선 등

종별·지역별

● 사고통계 관리강화 및 사고위치 현황도 마련·배포[추진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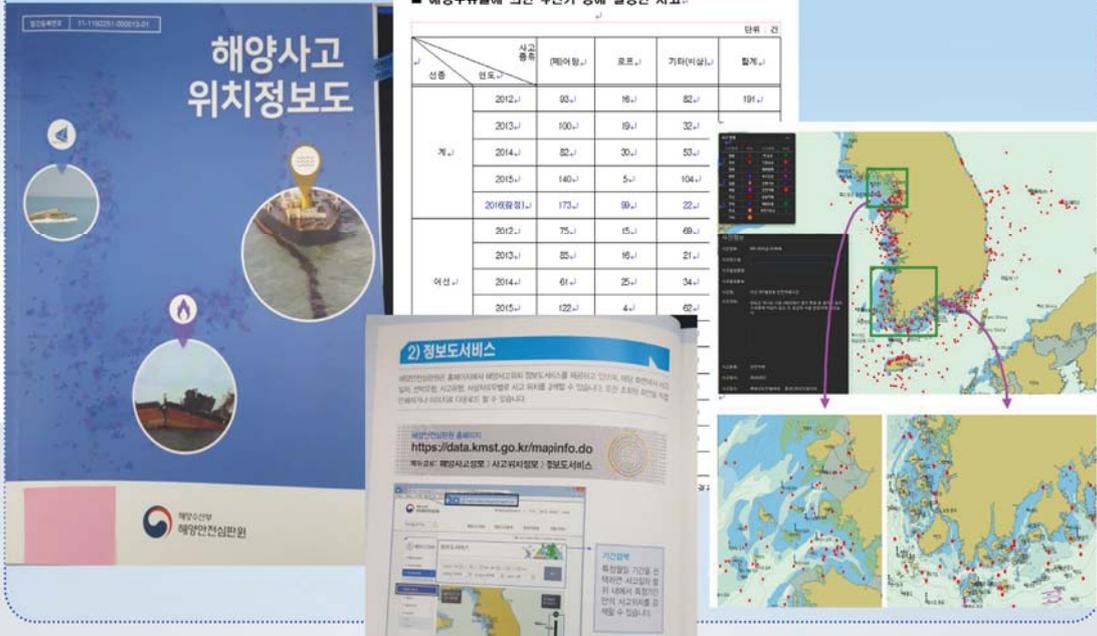
통계관리 세분화 —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유물의 세부분류, 위치 등 상세정보 확인 및 관리[17.2, 완료]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인물질 3종] 페어망, 페로프, 기타

사고위치 현황도 — 항로인근 해역 위주로 해역별 페어망·로프 감김사고 현황 등을 도식화한 안전지도 배포[17.2, 완료]
 * 우리나라 주변 전 연안해역 및 12개 무역항 인근해역 중심으로 제작

추진 대책 - 종사자 의식개선 등

종별·지역별

원인물질별 감김사고 통계 및 위치정보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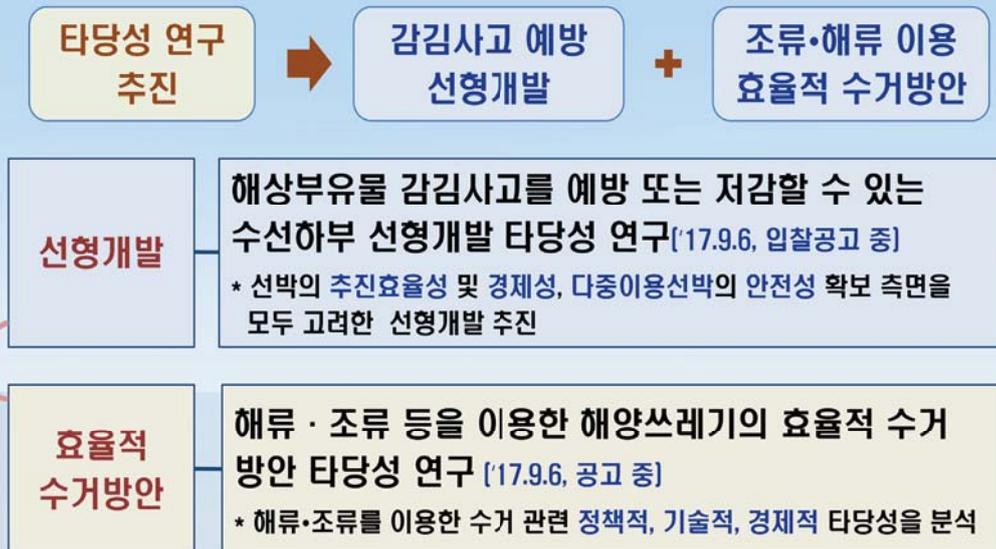


43

추진 대책 - 종사자 의식개선 등

종별·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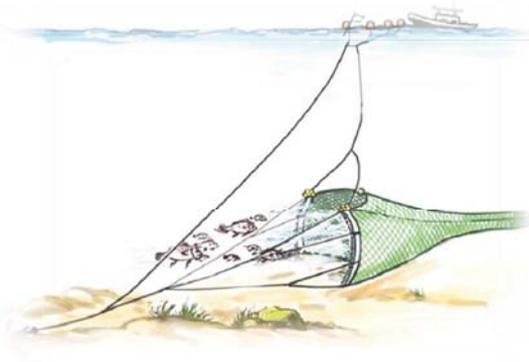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수거방안 및 선형개발 연구



44

공민·해양! (Red calligraphy)

V 향후 계획



45

향후 계획

공민·해양! (Red calligraphy)

단기 (17~18년도)

- 원인물질 효율적 수거방안 및 선형개발 연구(17.9~18.9)
- 로프커터 실증시험 결과 홍보 및 설치 의무화 검토(17.10~)
 - 학회발표, 기고 등을 통해 로프커터 연구결과 홍보
 - 설치 권장·의무화를 위한 관계부서(연안해운과, 해경 등) 협의·협업
- 어구관리법령 제정(~17.12)
 - '16.12. 국회 제출(국회 계류 중)

46

향후 계획

공민·해양!

중·장기 (계속)

- 로프커터 단계적 설치 확대 검토 [17.10~]
 - 낙도보조항로 여객선에 로프커터 설치 방침 결정[17.10~], 단계적 설치 소요예산 확보[18~]
 - * [설치단계] [1차] 낙도보조항로 여객선(26척)에 설치 소요예산 확보[18~19] → [2차] 일반항로 여객선, 다중이용선박으로 확대 검토[19년~]
- 어업인 등 종사자 의식 제고 및 원인물질 수거사업 확대(계속)
- 해양폐기물 관련법령 제정 추진 (17년~, 환경부와 협의 계속)
- 로프커터 효용성 등 연구결과 IMO에 정보문서 제출[18. 3]

47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